



모두의 숲  
미래의 캠퍼스









여섯 번의  
사계절을 지나며

## 12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이  
경기상상캠퍼스로 새롭게 싹을 틔우기 시작한 2016년으로부터  
어느새 여섯 번의 사계절을 거치며 2022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조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봄',  
다채로운 그루버, 그리고 축제를 통해 활기를 되찾는 '여름',  
문화예술을 좀 더 가까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농익던 '가을'을 지나  
한 해의 결실을 나누는 공유회를 진행하는 '겨울'까지  
각 계절의 성격을 담은 상상캠퍼스의 소식들을  
사계절의 흐름과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상상캠퍼스가 걸어온,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발자취를  
사계절을 따라 함께 걸어보세요.



# CONTENTS

여섯 번의 사계절을 지나며 04

## 봄, Spring

상상을 싹 틔우다

여섯 개의 키워드 10

일곱 개의 건물 12

숲속의 아름다운 공간, 상상캠퍼스 14

상상하는 사람들 1: 16

새로움\_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최진호 팀장



## 여름, Summer

상상을 펼치다



숲에서 함께 모여 즐기는 사람들, '그루버' 23

그루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2022 그루버를 소개합니다

상상하는 사람들 2: 36

어린이와 마음껏 놀기\_  
그루버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상상하는 사람들 3: 40

그루버, 그 이후\_졸업 그루버 PQR

숲에서 즐기는, '축제' 44

- 기획 축제  
- 숲속 모두의 포레포레

상상하는 사람들 4: 52

100년의 숲\_그루버 트리플레잉

## 가을, Autumn

상상의 결실을 맺다

숲에서 배우는, '교육' 59

-모두의 숲 정규프로그램  
-양손학교  
-다양성 문화예술교육 <더 나은 상상 >

상상하는 사람들 5: 66

씨앗을 꽃으로 만드는\_그루버 씨드앤그로우

숲에서 일상을 만드는, '생활문화' 70

-생활문화동호회  
-상상실험실·디자인 스튜디오  
-생활창작공방

상상하는 사람들 6: 72

숲속의 학교\_생활문화동호회 대나무학교

상상하는 사람들 7: 80

손으로 빚어낸 3년의 시간\_그루버 엔다스

상상하는 사람들 8: 86

생활문화를 창작하다\_생활창작공방 운영단체 바버야가

숲에서 창조하는, '디자인' 90

-경기 로컬 굿즈 개발 <청년마을상점> 프로젝트  
-지역대학 산학협력 프로젝트  
-경기 디자인 축제  
-디자인1978 공간 활성화

상상하는 사람들 9: 96

상상을 디자인하는\_그루버 집우집주

## 겨울, Winter

상상을 공유하다

숲속 전시회 102

-경기상상캠퍼스 교육결과공유회 <모여봐요 상상마을>  
-생활창작공방 장날  
-경기상상캠퍼스X수원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산학협력 프로젝트 전시

상상하는 사람들 10: 110

상상을 그리는 사람들, 상상그리너



## 다시 봄, Spring Again

다시, 상상

상상하는 사람들 11: 116

다시, 봄으로\_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주홍미 본부장

상캠퍼지 추천코스 120

e상상캠퍼스·상캠퍼 플리·아트샵 136

생일 축하해요, 상상캠퍼스 140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 142

운영 안내 144





## 봄, Spring 상상을 싹 틔우다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유휴공간 부지를 재생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하기 시작한 경기상상캠퍼스의 모습이 '봄'과 닮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땅을 뚫고 새로운 모습의 싹을 틔운 경기상상캠퍼스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조성되어 온 과정을 소개합니다.



# 여섯 개의 키워드

6주년을 맞이하여 6개의 키워드로 경기상상캠퍼스를 소개합니다.



## # 유희공간

서울대학교 농생대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2년간 남겨져 있던 유희공간을 재생하여 만들어진 공간, 경기상상캠퍼스

## # 생활문화

생활창작공방 · 메이커스페이스 생활문화동호회 · 공유부엌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 # 숲

수원역에서 버스로 8분만 오면 만날 수 있는 도심 속 숲



## # 그루버

'grove/groove + -er'의 합성어로 '숲에서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의 문화예술 창업창직 입주단체를 이르는 말

## # 푸른지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서쪽 (현재의 경기상상캠퍼스 정문)에 딸기 재배지가 있어 70~80년대 또 다른 명칭은 '푸른지대 상록캠퍼스'

## # 포레포레

그루버들의 상품을 판매하는 포레포레 숲속 장터로 시작되어 경기상상캠퍼스의 축제로 자리잡은 '숲속 모두의 포레포레'



# 일곱 개의 건물

길고 독특한 경기상상캠퍼스 건물들의 이름.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총 7개 건물들이 순차적으로 리모델링되었으며, 각 공간의 이름은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한글 이름에 건물 조성 연도를 조합한 것으로,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구 농원예학관 건물



현 생활 1980

## 생활 1980

어린이 책놀이터, 카페, 손살이공방 등의 입주단체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기상상캠퍼스의 중심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야외 사색의 동산, 1층 책놀이터, 손살이공방, 3층 테라스



구 농화학관 건물



현 청년 1981

## 청년 1981

문화예술 기반 입주단체 및 대관공간이 자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1층 그루빙룸, 7377버거, 2층 오픈캠프



구 농공학관 건물



현 생활1990

## 생활 1990

다채로운 생활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 및 입주단체 공간이 자리한 경기생활문화센터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1층 공유부엌, 상상실험실, 2층 동호회 공간 (한뼮전시, 무아지경, 생생살롱), 3층 생활창작공방



구 임학임산학관 건물



현 디자인 1978

## 디자인 1978

디자인 관련 공간 및 입주단체가 자리한 경기도 디자인 특화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1층 전시장, 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드라이브러리, 2층 디자인 스튜디오



구 대형강의실 건물



현 공간1986

## 공간 1986

공연, 전시, 행사 공간 및 융복합 관련 입주단체가 자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야외 치유의 굴뚝, 1층 멀티방커



구 농업교육학관 건물



현 교육 1964

## 교육 1964

교육 공간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행사가 이루어지는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야외 교육아트리에: 대학의 정원, 1층 컨퍼런스홀, 모두배움터



구 농업공작실건물



현 공작 1967

## 공작 1967

입주단체 공간 및 작업 공간이 자리한 건물입니다.

**추천 장소:** 야외 그래피티



## 숲속의 아름다운 공간, 상상캠퍼스

도심 속 펼쳐진 숲, 학교를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들, 곳곳의 서울대 마크까지.  
상상캠퍼스를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이 이 곳이 어떤 공간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요.

경기상상캠퍼스는 1946년 8월 수원고등농림학교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되었던 자리에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발걸음들과 '푸른지대 상록캠퍼스'라고 불리던 농생대는 2003년 9월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면서  
12년 9개월 동안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2014년부터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던 교정과 건물들을  
생활문화와 청년문화가 혼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하기 시작하였고  
2016년 6월 11일, '모두의 숲, 미래의 캠퍼스'라는 슬로건 아래 경기상상캠퍼스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907**

농림학교  
수원 이전

**1946**

서울대학교  
농업대학으로  
설치, 병합

**20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2008**

농업생명대학  
시민에게 숲 개방

**2012**

도유지 경인교대  
부지와 국유지  
서울 농생대 부지 교환

**2013**

농업생명대학  
완전 개방,  
산책로 조성

**2015**

경기상상캠퍼스  
조성 시작

**2016**

2016 경기상상캠퍼스&  
경기생활문화센터 개관,  
생활1980, 생생1990 오픈

**2017**

청년1981  
공작1967 오픈

**2018**

공간1986  
오픈

**2019**

교육1964  
오픈

**2020**

디자인1978  
오픈

**2021**

e상상캠퍼스  
오픈

**2022**

현재



### 경기상상캠퍼스 BI

경기상상캠퍼스 BI는 '상상, 숲, 사람'이라는 경기상상캠퍼스의  
3가지 구성요소를 'S'으로 형상화한 디자인입니다.  
또한 'S'은 숲을 이루는 나무구조의 구성원리를 적용하여  
상상캠퍼스가 추구하는 가치의 융합을 의미하는 기본단위입니다.



### 상상메이트

수원여대 산학협력 및 도민투표로 제작한  
경기상상캠퍼스의 대표 캐릭터 '상상메이트'



# 상상하는 사람들 1 \_ 새로움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최진호 팀장)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진호입니다. 올 2월에 이곳에 왔으니까, 상상캠퍼스 생활문화팀에서 일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네요.

## 상상캠퍼스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2016년쯤 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잘 깔려 있거나 전체가 개방돼 있지는 않았었던 거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계절이었는데 비가 조금씩 내렸었어요. 그날 마침 성악가 폴 포츠(Paul Potts)가 공연했던 기억이 나는데, 조금 황량했던 느낌으로 남아 있어요. 사실, 그때는 같은 재단에 근무하면서도 상상캠퍼스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몰랐어요. 당시 상캠은 공간을 하나하나 준비하던 시기여서, 이곳 전체가 상상캠퍼스라기보다는 그저 건물 하나가 상상캠퍼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 1년 안 되는 시간이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상캠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사실 생활문화팀이 업무량이 많은 팀이어서 끊임없이 일을 했던 기억밖에 없는데요. 특히 9월에서 10월까지의 거의 3주 연속 주말마다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마다 팀원들 모두가 한 행사 준비하고, 끝나면 또 다른 거 준비하면서 계속 집에도 못 가고, 야근도 많이 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행사가 끝났을 때, “끝났다!”라고 소리쳤어요. 너무 짧은 기간에 몰아쳐서 했던 일들이 끝났을 때의 해방감, 해소감 같은 것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성취감도 있었고요. 반면 아쉬운 점도 있었죠.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처음, 시작, 새로운 같아요. 첫 팀장으로 와서 상상만의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저에게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상상캠퍼스는 직원분들이나 입주해 있는 그루버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시기도 하지만, 특히 도민들의 이용이 활발하다는 점이 특징적인데요. 상상캠퍼스가 도민들에게 어떻게 활용되고 기억되기를 바라시나요?**

상캠프가 유휴공간을 재생한 공간이잖아요. 사실 유휴공간을 재생한 사례가 전국에 많은데요. 재생 이후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반면 상캠프는 운영에서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찾고 경기도와의 협이나 협업이 잘돼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노후화된 공간도 더러 있어서 앞으로 고민되는 지점도 많을 것이고 무엇이 어떻게 변할지도 미지수이지만, **도민들이 지금처럼 편하게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캠프에는 주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상캠프를 계속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고 그들도 아이가 생겼을 때 또 올 수 있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까지 지속해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캠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들이 도민에게 잘 알려지고 쉽게 다가가게 하기 위한 팀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팀원들이 기획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적 경험 같은 것들은 그간에 재단에서 오래 일한 노하우가 있는 제가 알려줄 수 있지만 사업 구상, 기획 등은 젊은 감각과 트렌드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팀원들이 훨씬 잘 아는 일이고, 그게 도민들과 호흡이 더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대한 팀원들이 자유롭게 재밌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사실 팀원들 개개인이 맡은 업무가 많아서 줄일 필요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업무를 정리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에 집약적인 효과가 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올해 초에 제가 생활문화팀에 처음 왔을 때 팀원들의 근무 시간을 보고 엄청나게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팀원들의 워라밸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게 실천이 됐는지 물어보기 두렵더라고요. 업무량은 여전히 많지만, 팀원들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맘껏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캠프에 입주한 그루버, 활동가 그리고 놀러 오시는 도민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루버는 상캠프의 내부 고객이자 외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결국 그해 상캠프의 사업 성과와 직결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루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이 상캠프와 잘 결합이 된다면 축제·지원사업·교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루버분들께서 저희와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주해 계신 동안 이곳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키고 안정화해서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활동가분들은 상캠프 밖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셨던 분들이실 텐데요, 밖에서 상캠프를 봐오면서 하고 싶었던 기획 같은 것들을 자유로이 제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안을 저희가 잘 반영해서 상캠프에 오시는 도민분들이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루버와 활동가분들 모두가 협업 체계를 잘 유지해서 서로에게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길 바랍니다.

도민분들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상캠프에 와서 즐겨주시고 다양한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이 쾌적하게 상캠프를 이용하고 상캠프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되가져가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주시는 등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여름, Summer 상상을 펼치다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창업창직을 이루어나가는 다채로운 색깔의 그루버,  
그리고 도민들의 풍경이 어우러지는 축제는 역동적이고 활기찬 '여름'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푸릇함이 가득한 상상캠퍼스를 담은 그루버와 축제의 모습을 여름 풍경과 함께 살펴보세요.







## 숲에서 함께 모여 즐기는 사람들, ‘그루버’

그루버(Groover)란, ‘작은 숲(grove)’, ‘즐기다(groove)’와 ‘-er’의 합성어로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연환경을 벗 삼아 문화예술에 기반한 창업·창직 활동을 펼치는 입주단체를 의미합니다. 그루버는 매년 12월~1월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연장심의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상상캠퍼스의 공간을 사용하고 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고 싶은 도민이 공유오피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멤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그루버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 네트워킹 프로그램

그루버 · 라운지멤버 · 재단 담당자들이 교류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



## 그루버 연계프로젝트



### 2022 오리엔테이션

2022 그루버들이 모여 서로를 소개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관계를 다시 시작하며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

### 신구친구

2022 신규 그루버(신)와 기존 그루버(구)가 1:1 매칭되어 협업의 지점을 찾고 문화예술 기관을 자율적으로 탐방하는 프로그램

### 라운지테이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그루버 · 라운지멤버 · 재단 담당자가 모여 다양한 문화예술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라운드테이블

### 그루버 현장답사

가을맞이 그루버들이 모여 함께 떠난 1박2일 현장답사



### 협력프로젝트

3개 이상의 그루버가 컨소시엄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원사업

### 라운지프로젝트

라운지멤버가 하나의 팀으로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원사업





대외진출·역량강화



**핸드아티코리아 부스 참여**

7월 서울 핸드아티코리아(서울 코엑스, 7.28~31)  
10월 수원 핸드아티코리아(수원메세, 10.27~30)

**클라우드펀딩 워크숍**

클라우드펀딩 초기 지원금 지원 및 클라우드펀딩 성공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진행

**고문 세무사 운영**

문화예술 기반 창업창직 단체인 그루버 대상 분야별 오프라인 세무 교육과 월별 개별 자문을 제공



**쌤스쿨(SSM SCHOOL)**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워크숍 프로그램

**경기상상캠퍼스 사업 연계**

포레포레 및 기획축제 참여·교육·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상품 입점·굿즈 및 홍보물 제작 등



# 2022 그루버를 소개합니다

## 생활 1980

**청류**

■ 전통예술 전문 엔터테인먼트

📍 301호

🌐 [www.instagram.com/cheongryu\\_official](http://www.instagram.com/cheongryu_official)

**꿈만세**

■ 창의 융합 코딩과 메이킹 교육 진행, 교육 콘텐츠 개발

📍 302호

🌐 [www.dreammanse.com](http://www.dreammanse.com)

**씨드앤그로우**

■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향유를 위한 제품 제작

📍 303호

🌐 [www.instagram.com/seed\\_and\\_grow](http://www.instagram.com/seed_and_grow)

**토비누리**

■ 식물 예술 분야 교육 프로그램 및 아이디어 교육 자재 개발

📍 304호

🌐 [www.tobisgarden.com](http://www.tobisgarden.com)

**샘도내기**

■ 전통문화 예술 공연, 교육, 교구 개발

📍 305호

🌐 [blog.naver.com/kc804](http://blog.naver.com/kc804)

**키트컬렉티브**

■ 사용자 맞춤형 테크 라이프 스타일 가족 제품

📍 306호

🌐 [www.instagram.com/kit.collective](http://www.instagram.com/kit.collective)

**영청**

■ 전통 단청 디자인 및 교육

📍 307호

🌐 [www.instagram.com/youngcheong9092/](http://www.instagram.com/youngcheong9092/)

**오믈렛**

■ 미술, 영화, 음악, 무용 등을 통한 융복합 미디어 교육

📍 308호

🌐 [www.instagram.com/5\\_melet](http://www.instagram.com/5_melet)

**그레이트이블**

■ 장소 특정적 예술, 농업예술 스토리텔링, 참여형 축제

📍 309호

🌐 [linktr.ee/great.able](http://linktr.ee/great.able)

**재재상점**

“다시 쓰고, 거듭 쓰다”

**재재상점**

再再商店

■ 다시 쓰고, 거듭 쓰는(再再) 교육, 체험 및 제품 개발, 기획, 판매

📍 손살이공방 1호

🌐 [www.instagram.com/jaejaestore\\_zerowaste](http://www.instagram.com/jaejaestore_zerowaste)

**이서우드**

■ 목공예품 연구개발 및 체험 교육 프로그램

📍 손살이공방 2호

🌐 [woodart61@naver.com](mailto:woodart61@naver.com)

**엔다스**

■ 도자기 제조

📍 손살이공방 3호

🌐 [www.ndars.co.kr](http://www.ndars.co.kr)

**주민센-타**

■ 우리 농산물 활용 식품 개발 및 판매

📍 손살이공방 4호

🌐 [www.instagram.com/jumince\\_nte](http://www.instagram.com/jumince_nte)

**스리플렛**

■ 꽃과 레진을 이용한 액세서리 제작 및 판매

📍 손살이공방 5호

🌐 [www.sriplet.com](http://www.sriplet.com)



생생 1990

지구사용공부방



■ 환경 및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구개발

📍 211호

🌐 [www.instagram.com/using\\_earth\\_studyroom](http://www.instagram.com/using_earth_studyroom)

쪽빛나라



■ 발효 쪽염색에 관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 212호

🌐 [www.instagram.com/kindigo\\_studio](http://www.instagram.com/kindigo_studio)

헤리티제이



■ 패브릭(섬유 의료 및 잡화) 활용 업사이클링, 패션 창작 및 판매

📍 213호

🌐 [www.instagram.com/heriti.jay](http://www.instagram.com/heriti.jay)

아트스튜디오 피어나



■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예술 치유의 문턱을 낮추고 대중화에 기여

📍 214호

🌐 [hi\\_nrmt@naver.com](mailto:hi_nrmt@naver.com)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 숲해설가를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215-1호

🌐 [ngopark@daum.net](mailto:ngopark@daum.net)

포레섬



■ 숲해설가, 놀이정원 기획자, 생활목공 기획자로서 프로그램을 기획

📍 215-2호

🌐 [artagency@hanmail.net](mailto:artagency@hanmail.net)

그림 그리는 정원사



■ 자연 속 생명 관련 생태 교구 제작 판매, 교육

📍 216호

🌐 [www.instagram.com/soojunghan\\_](http://www.instagram.com/soojunghan_)

공작1967

타임플라워



■ 문화기획, 공연, 음반, 콘텐츠 제작

📍 107호

🌐 [www.instagram.com/timeflower\\_nam](http://www.instagram.com/timeflower_nam)

헤이만두 컴퍼니



■ 디지털 미디어 아트, XR, 전시, 문화예술 콘텐츠

📍 107호

🌐 [www.instagram.com/heymandoo\\_official](http://www.instagram.com/heymandoo_official)

오소오프



■ 가구디자인, 제품디자인, 공간디자인, 조형, 입체, 설치

📍 109호

🌐 [www.oneseochoi.com](http://www.oneseochoi.com)

공간1986

둥글게 둥글게



■ 패브릭 아트웍 교육용 키트 제작 판매, 교육

📍 221호

🌐 [www.instagram.com/rnr21kr](http://www.instagram.com/rnr21kr)

STUDIO SOOBO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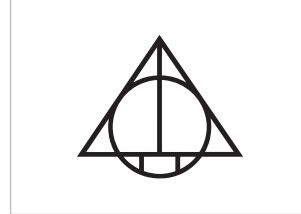


■ 다원예술-공연 기획, 예술-비예술 협업 연구

📍 222호

🌐 [www.instagram.com/studio\\_soobox](http://www.instagram.com/studio_soobox)

소요컴퍼니



■ 단편영화 작업, 생활문화 기반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

📍 223호

🌐 [www.instagram.com/soyofilm](http://www.instagram.com/soyofilm)

김pd



■ 루프스테이션과 사운드스케이프를 활용한 연극 작품 활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술 교육 및 거리 공연 기획

📍 224호

🌐 [www.facebook.com/Duyoung84](http://www.facebook.com/Duyoung84)



## 청년 1981

###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 어린이와 자연, 놀이가 만나는 문화예술기획과 창조적 상상을 실현하는 어린이와 예술가 커뮤니티아트 창작집단

📍 101호  
 🌐 [www.instagram.com/childrenfly1981](http://www.instagram.com/childrenfly1981)

### 주식회사 달고리



■ 크라우드펀딩,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여성 창업 업체로 완두콩 파티 개최, 환경박스 제작 판매

📍 102호  
 🌐 [www.instagram.com/dalgori](http://www.instagram.com/dalgori)

### 책속의 책



■ 그림책 활용 글쓰기 및 책 쓰기 교육, 그림책 테라피

📍 103호  
 🌐 [www.instagram.com/book.in.book](http://www.instagram.com/book.in.book)

### 뮤지엄 스튜디오



■ 사진, 영상, 과학을 융합하여 도전과 상상의 체인지 메이커로 만나는 공간

📍 104-1호  
 🌐 [www.instagram.com/boara\\_13](http://www.instagram.com/boara_13)

### 고마음나무주식회사



■ 숲속 나무 가족학교 학습 콘텐츠 교육 및 트리하우스 콘텐츠 조성

📍 104-2호  
 🌐 [www.wood.re.kr](http://www.wood.re.kr)

### 퍼플스모크트리



■ 화훼와 원예 관련 체험 프로그램, 교육, 제작 판매, 공방

📍 104-3호  
 🌐 [www.instagram.com/yumjh3933](http://www.instagram.com/yumjh3933)

### 트리플레이잉



■ 숲생태놀이, 밧줄놀이, 트리클라이밍 체험 및 교육

📍 105호  
 🌐 [www.treeplaying.co.kr](http://www.treeplaying.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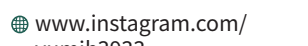
### 경기식품양조연구원



■ 맥주 양조의 기초 교육, 양조 창업 창직 교육, 홈브루잉 등 다양한 양조 교육 진행

📍 106호  
 🌐 [www.sangsangbeer.com](http://www.sangsangbe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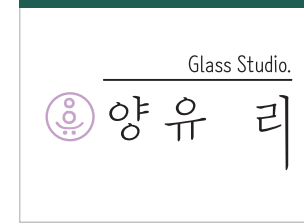
### DreamTrail 숲길



■ 산림교육전문가들이 학교 밖 청소년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208호  
 🌐 [www.cafe.daum.net/dream-trail](http://www.cafe.daum.net/dream-trail)

### 양유리



■ 유리공예를 기반으로 한 제품과 교육 콘텐츠 개발

📍 201-4호  
 🌐 [www.instagram.com/yusunyanglass\\_yangyuri](http://www.instagram.com/yusunyanglass_yangyuri)

### 해피준 ENT



■ 대중예술 퍼포먼스 창작 집단, 뮤지컬, 축제, 음악극

📍 204호  
 🌐 [www.facebook.com/balloonmagicshow](http://www.facebook.com/balloonmagic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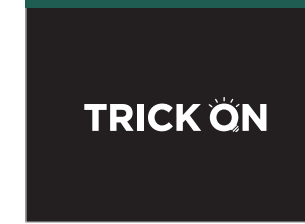
### 썬스코



■ 유리병 및 와인병 리폼을 통한 체험학습 및 제품 제조, 판매

📍 206호  
 🌐 [www.upcycledesign.modoo.at](http://www.upcycledesign.modoo.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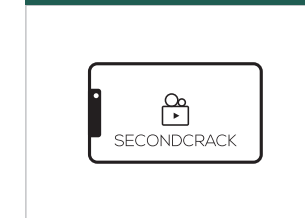
### 트릭온



■ 미술 진로 강의 및 공연

📍 203호  
 🌐 [www.instagram.com/trick\\_on\\_/](http://www.instagram.com/trick_on_/)

### 세컨드 크랙



■ 스토리텔링 기반 영상 제작 및 시나리오 제작

📍 207호  
 🌐 [www.vimeo.com/user16090752](http://www.vimeo.com/user16090752)

### 디자이너 그룹



■ 실속형 핸드메이드 가방 제작, 가죽공예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 209호  
 🌐 [iopgo37@naver.com](mailto:iopgo37@naver.com)



## 디자인1978

### 오브니

OFNI

■ 디지털과 인쇄매체 영역의 시각  
물을 다루는 그래픽 스튜디오

📍 310호

🌐 [www.instagram.com/  
ofni.info](http://www.instagram.com/ofni.info)

### 집우집주



■ 공간 기획, 인테리어 디자인

📍 311호

🌐 [www.instagram.com/  
zipwoo\\_zipwoo](http://www.instagram.com/zipwoo_zipwoo)

### 순트

soont

■ 가구, 오브제 및 리빙  
제품 디자인

📍 312호

🌐 [www.instagram.com/  
soont.life](http://www.instagram.com/soont.life)

### 책들



■ 아티스트 북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북아트 교육, 워크숍

📍 313호

🌐 [www.instagram.com/  
chaeg\\_ddeul](http://www.instagram.com/chaeg_ddeul)

### 지코퍼레이션

Zcorp.

■ 디자인 및 콘텐츠 연구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 중인 기업

📍 314호

🌐 [young-ju@z-corporation.kr](mailto:young-ju@z-corporation.kr)

### 희비스튜디오



■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 316호

🌐 [www.instagram.com/  
heebeestudio](http://www.instagram.com/heebeestudio)

### 챔퍼

CHAMFER

■ 홈퍼니싱, 홈인테리어 굿즈 디자인

📍 317호

🌐 [www.instagram.com/  
chamfer\\_design](http://www.instagram.com/chamfer_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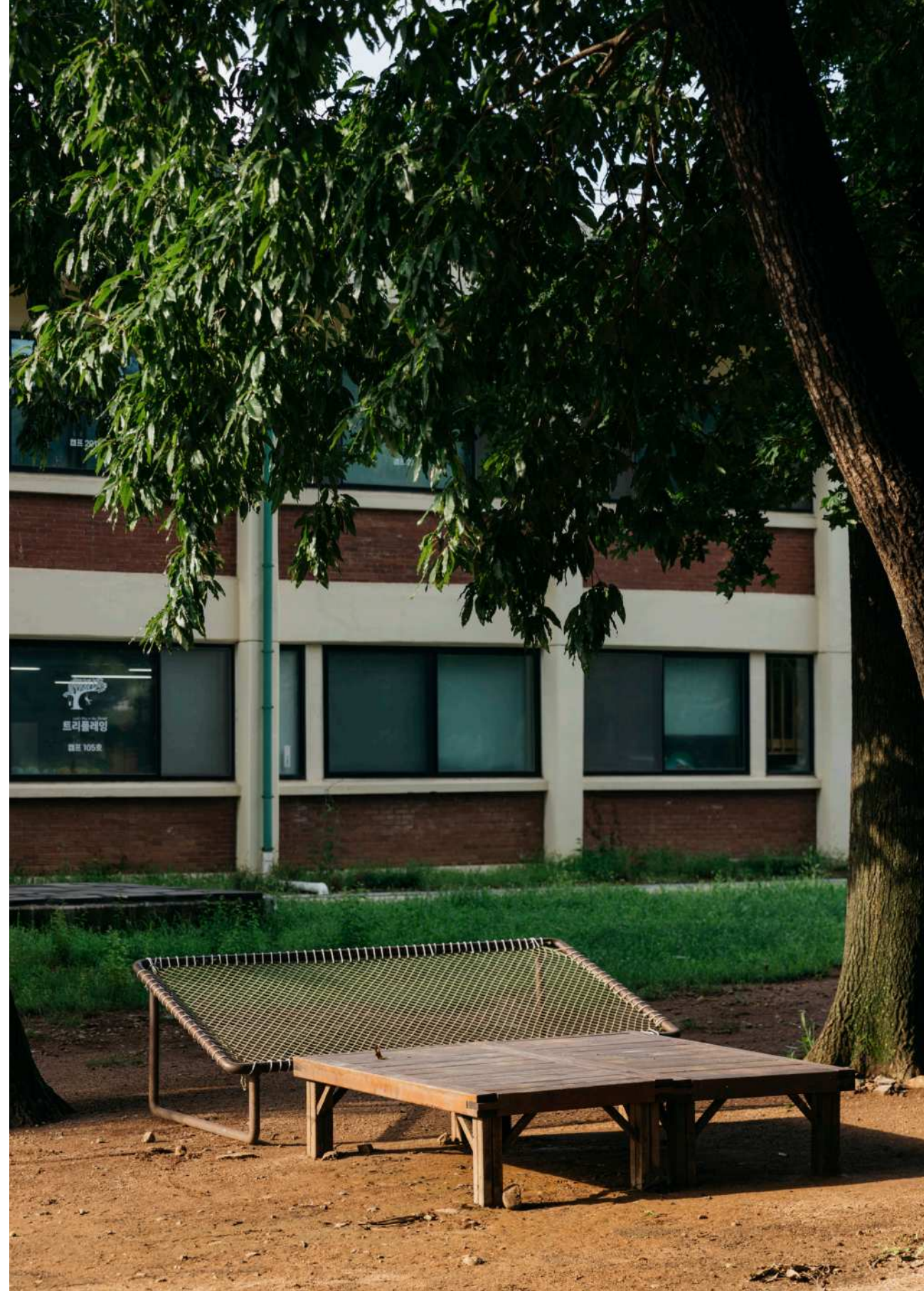
### 툰디자인



■ 일러스트, 교구 디자인

📍 318호

🌐 [www.instagram.com/  
toondesign\\_official](http://www.instagram.com/toondesign_official)





# 상상하는 사람들 2 어린이와 마음껏 놀기

2년차 그루버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정재민 대표)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고 어린이들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정재민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린이들과 마음껏 놀기 위해 예술창작 놀이터를 기획하고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사실 제가 수원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하지만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수원에 자주 오지 않게 되고, 가끔 와도 그사이 너무나 변해 있어서 길을 찾지 못할 정도였어요. 코로나19 유행이 막 시작되던 해인 2020년에 경기도 예술인 협동조합 프로젝트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우리 협동조합이 1차 합격해서 인터뷰하러 상캠프에 오게 되었어요. 그때 문득 이곳이 과거 서울대 농대였던 시절에 친구들과 이곳에서 놀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인터뷰 때문에 우연히 오게 되어 제 과거와 만난 것 같아요. 게다가 공간이 너무 멋지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야겠다고 생각했죠. 인터뷰하러 온 날, 그 당시 계시던 생활문화팀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단체 소개를 했더니 그루버 모집을 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에 바로 그루버로 지원하고 그다음 해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 상상캠퍼스에서 그루버로서 하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이 공간에 처음 입주했을 때인 것 같아요. 조합원들과 함께 서로 마음을 모으고 색다른 공간을 만들기 위해 페인트칠, 목공 설치 등을 했던 첫째 3월이 유독 설렜어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우리 협동조합이 어린이 축제를 굉장히 오래 해온 단체인데,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축제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비공식적으로 청년1981 앞마당에서 어린이 축제를 했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저희가 준비해 놓은 캔버스에 마음껏 그리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나무에까지 그림을 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행사 후에 상캠프 직원 선생님과 함께 나무의 페인트칠을 벗기느라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예술을 표현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만, 상캠프의 아름다워나누는 정말 소중한기에 조금은 색다른 방법을 창조해가며 그걸 원상 복구하려 했던 힘들었고 웃겼던 에피소드예요.

##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상상캠퍼스는 휴식 같아요. 상캠프 문을 들어서서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순간이동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의 평화를 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것에서 ‘처음’이라는 경험을 한 곳이에요. 작년에 처음으로 텃밭을 가꿔 보기도 했고요, 자전거도 배웠어요. 자전거를 타기에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시작했는데,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의 제 모습을 생각하면 좀 감동적일까요? 상캠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요하게 자전거를 배우다가 스스로 타게 되었던 그 순간이 잊히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이 자전거를 계속 잡아주다가 둘째 날 해 질 녘쯤에 스스로 타게 되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 아직도 몽클해요. 어떻게 보면 텃밭 가꾸기나 자전거 타기 모두 제 인생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였는데, 이 두 가지를 작년에 상캠프에서 한꺼번에 하게 된 거죠.



###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저는 상캠프로 들어서기 직전에 보이는 동그란 문이 맘에 듭니다. 따로 신호등이 없는 곳, 그래서 주변을 이리저리 잘 살핀 후 진입하는 곳이잖아요. 조금 작고 소박해 보이는 입구에 들어서면 안도감과 포근함을 느끼게 돼요.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올 때, 다른 차원의 세계로 진입하는 것 같아서 좋아합니다.

### 상캠프에서 앞으로 하고 싶으신 작업은 무엇인가요?

어린이날다가 하는 일은 크게 지구 살리기 프로젝트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예술 창작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일인데요. 내심 우리 단체는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예술 창작 캠프를 제일 잘하는 단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앞으로 상캠프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건 <어린이 캠프>입니다. 이를테면,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텐트를 치거나 혹은 푹푹딱딱 자기들이 짓고 싶은 집을 만들어서 하루 자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캠프에서 '포켓몬 고' 같은 상상캠퍼스만의 몬스터를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게임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상캠프 부지가 너무 아름답고 넓기 때문에 이런 게임을 하면서 곳곳을 구경시키고 알려주는, 교육과 게임이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펼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상캠프에 비어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 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비운 다음 어린이들이 그곳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신나게 놀아보게도 하고 싶어요.



### 마지막으로, 상캠프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혹은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어린이날다는 상캠프에서 진행하는 그루버 협력 사업을 해 왔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끔은 우리가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 정작 하고 싶은 기획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어요. 가능하다면 꼭 협력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기획력이 있는 단체의 구상이 상캠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저희가 하고 싶었던 <어린이 캠프> 같은 기획도 상캠프와 직접 논의해서 추진해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 물론 제한이 많을 수 있겠지만, 기획단계에서 그루버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좀 더 보장된다면 더 활력이 넘치는 상상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안에서 행사나 축제 같은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년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좀 있거든요. 반복되는 기획보다는 좀 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기획을 그루버의 자발적인 의견을 통해 끌어낸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상상하는 사람들 3 \_ 그루버, 그 이후

졸업 그루버 PQR (천인우 대표)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PQR Creators Label의 천인우입니다. 브랜딩 디렉터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면서 공간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먼저 행궁동에 PQR Creators Label 디자인 스튜디오가 있고요. 버거 Pub “OPQR”과 이자카야 “사케도로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기상상캠퍼스를 처음 어떻게 만나게 되었고,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상캠프에 들어오기 전에 행궁동에 스튜디오가 있었어요. 상상캠퍼스가 지금처럼 활성화되기 전, 그러니까 초창기에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그때 디자인 랩 조성에 대해 자문하다가 “그 운영을 저희가 하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고, 결국 디자인 랩 운영팀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현재 상캠프의 디자인1978 건물이 생기기 전까지 디자인 랩 운영도 하고 관련 활동을 거의 도맡아 하면서 3년 조금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 ‘그루버’라는 이름을 처음 만드셨다고 들었는데, 그 계기나 과정에 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루버’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서 그런지 그루버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아요. 상캠프에서 소개하는 ‘그루버’의 개념이 초창기에 저희가 만들었던 개념이랑은 조금 달라졌더라고요. 상캠프에서는 ‘작은 숲’(grove), ‘즐기다’(groove)와 ‘-er’의 합성어로 경기상상캠퍼스의 자연환경을 벗 삼아 문화예술 기반 창업·창직 활동을 펼치는 입주단체를 ‘그루버’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은 숲’을 의미하는 영단어 ‘grove’는 같지만, 한곳에 모이는 집단인 ‘grouping’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로써 사용했거든요. 제가 상캠프에 있을 때 계셨던 전수린 선생님과 그 시작을 함께했는데, 선생님과 즐거운 상상을 통해 다양한 기획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상캠프 안의 공간들을 게임으로 표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게임이 있으려면 캐릭터가 있어야 하니 ‘그루버’라는 주인공 캐릭터를 만들었던 거죠. 상캠프 안의 ‘작은 숲’을 통해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의 과정을 통해 ‘그루버’라는 이름이 지어졌던 것 같네요.

게임으로부터 출발한 콘셉트가 각 공간에서도 잘 묻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픽셀 아트 느낌의 팝업을 만들고 게임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공유 오피스 WeWork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WeWorker라고 부르는 것처럼, 한 공간 안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처음 시도하는 기획으로서, ‘그루버’라는 이름의 브랜딩을 했던 것이 의미 있었어요.



**3년 넘게 상캠에서 그루버로 활동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웰컴 키트’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공간 설명서’인데요, 처음 입주한 그루버들을 위한 키트였습니다.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 노트, 스티커 등을 세트로 구성해서 만들었어요. ‘그루버’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고, 그 이름에서 파생되는 브랜딩 아이디어나 기획 같은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니 재미있었죠. 그 작업을 하면서 브랜딩의 재미를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외주 작업을 주로 했었거든요. 공작1967 건물의 픽셀로 된 간판도 저희가 작업한 건데요. ‘그루버’의 초기 아이덴티티라고 볼 수 있죠.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기회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상상캠퍼스, 이름 그대로 이곳에서 저는 정말 많은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한 그루버의 활동을 보면서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상상했고, 그게 실현되는 게 신기했어요.

**상캠과 협력해서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으시다면?**

사실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팀의 자기 주도성을 조금 잃어버리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을 할 땐, 누군가와 협업한다면 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응원해주고 협력하는 상캠과 함께하면 또 새롭게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 중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일을 꼽자면, 저희가 <YOSE(요새)>라는 매거진을 만들고 있거든요. 상캠의 그루버 중 본인만의 브랜드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분을 조명해보는 작업을 이 매거진에 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루버 스페셜 에디션’ 같은 호가 되겠죠. 그리고 저희 팀의 기본적인 모티브가 굿즈 생산인데요. 함께 굿즈를 만들어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졸업을 앞둔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버티는 게 재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분야에선 천재라고 생각해요. 생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실 크리에이티브 기반의 사업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과 안정적인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많이 오거든요. 그때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끝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버티다 보면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흔들리고 힘든 순간들도 많겠죠. 그 시기를 잘 버틴다면 그 이후에는 이런 고민을 뛰어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진짜 힘든 순간은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쉽진 않았지만, “즐겁게 생존하는 법을 각자 체득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많은 경험을 해봐야 터득하는 게 많은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한 90%는 못 버티어요. 그런데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내가 그 10%가 되면 난 그다음 영역에서 다른 고민을 할 텐데, 나 역시 그 90%랑 같이 썰물에 밀려난다면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버티기만 하면 그 10%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해볼 만한 일이라고 격려해 주고 싶어요.

제가 F&B 쪽 운영을 많이 하니까 다양한 사례를 보는데요. 실제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망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음식도 진짜 잘하시고 손님 응대도 잘하시는데 텅텅 비어 있는 가게가 많다는 얘기에요. 반면 음식이 맛없는데도 그냥 자리가 좋다는 이유, 광고를 잘한다는 이유로 줄 서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 진정성 있게 시작했던 사람이 빨리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진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면서요. 이럴 때가 잘 버텨야 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손님 마음을 끌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 버틸 수 있는 용기 등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어쩌면, 버티는 힘은 하고 싶은 마음이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결국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꾸준함이 천재성”이라는 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꾸준함을 잘 버틴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천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 숲에서 즐기는, 축제

2022년 기획 축제 및 문화축제 '포레포레'로 도민과 함께한 숲속 축제를 만나보세요.





# 기획 축제

공연, 플리마켓, 야외상영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까지 함께할 수 있는 숲속 축제



#동심을 상상해 '봄'



#반려동물 축제  
'상상투게더'



#음악을 상상해 '봄'



#하프-타임



#녹녹녹







좋아요 18개

such1517 우리가족 사랑을 듬뿍받고있는 경기상상캠퍼스. 이날은 중경상림!! 야외에서 영화보기~! 아~ 신청은 했는데 아이들이 문제군... 우리애들은 관람불가나이나이ㅋㅋ 엄마는포기하고 할머니랑 아빠랑 영화감상시키고 아이들과 한바탕 뛰어놀기~! 비가살짝내려 무지개까지본 기분좋은저녁~! 역시 상캠~ 우리가족의 단짝~!!??^^



좋아요 3개

dayul.ee 미리 예약을 성공해서 너무나 부듯했던 상캠에서 영화 2편 보기 #어네스트와셀레스틴 #걸기왈

온가족이 즐기기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좋았다

준비해주신 강냉이 먹으면서 빈백에 날부러져 영화보니, 정말로 힐링데이



moanahula.han님 외 55명이 좋아합니다

jinahula 220505 어린이날 수백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울라를 추었다.

20분간 5곡의 공연을 하고 인사를 하는데 앵플 요청으로 급 관객들과 참여형 클래스 시작! 오랜만에 진짜 많은 사람들과 다같이 즐긴 축제였다.

앵플곡까지 끝나자 우리가 무슨 디즈니 공주마냥 아가들이 와서 수줍게 인사하고 눈이 하트가 돼서 사진 찍어달라고 졸서고 너무 사랑스러웠다 아가들의 눈이 뻥뻥뻥 엄마들의 셔터는 난리난리

울라도 서핑이나 요가처럼 단순한 춤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치유되고 좋은 기운을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다.

Aloha 더 많이 알로하 해가지



좋아요 11개

lalabo312 10월 경기상상캠퍼스

날씨가 좋아서 부담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아이들과 텐트치고 공놀이하고 구경하고 행사하는날엔 클라이밍도해보고 공연도 구경하고

집근처에 있어서 넘 좋음:)



좋아요 11개

hope.mangmang #반려동물축제상상투게더 에 방문했다 망망이를 기억해 주신 이쁜 언니야들 만났다 인연은 소중한♡ 그 소중한 찰나의 인연 덕분에 작년에 찍은 사진을 받아 아줌마 아저씨 망망 사진이 완성되었다 9개월동안 사진을 버리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려동물축제상상투게더2 #상상캠퍼스 #줍깅 #상상줍깅



좋아요 59개

aeroju777 날씨좋은 가을에 아이들과 함께 놀기 딱 좋은 경기상상캠퍼스...너무 재밌었다는 나무타기♡ 다양한 볼거리와 참여부스도 많아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아이들이 흥미있고 재밌는 교육프로그램도 있는것 같아 다음엔 신청해보야겠다



timeflower\_nam님 외 17명이 좋아합니다

tfcdeszaq 8월 27일의 가인♡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포레포레!! 한동안 안하다가 다시 시작한다고해서 고고!

가인은 저 공연이 너무재밌었다고 다른거도 구경하고 놀자고 해도 저기봐야된다고ㅋㅋ 재밌던 공연 끝까지 다봤당

집가는길에 플라마켓구경하면서 보라색스마일가방고리 사고싶다골ㅋㅋㅋㅋ 가방이랑 가방고리덕템한 류가니씨



funk\_y님 외 78명이 좋아합니다

sheltie\_rotto 상상투게더2 이번에도 다녀왔어요♡

이번엔 놀이부스가 생겨서 신기해뜸 울릉강아지 님 해맑게 잘하는구민?!



좋아요 29개

k\_hj0131 규빈이의 어린이날♡ 작년엔 태어나고 한달쯤 되어 어린이날이라 집콕이었는데 올해는 캠코빅하러 규빈이가 체험할 수 있는건 없었지만 포토존에서 사진 남기고 바깥쪽에 자리잡아 한적하게 즐겼다 여기 관람은넵?!?! ㅎㅎㅎ 놀러오지

#어린이날 #오늘도예쁜규빈



# 숲속 모두의 포레포레

코로나19로 '숲속 장터 포레포레'가 멈춘 이후, 소규모 문화축제 '리틀포레'를 거쳐 3년 만에 다시 시작된 축제, '숲속 모두의 포레포레'





# 상상하는 사람들 4 \_ 100년의 숲

2년차 그루버 트리플레이 (조혁균 대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나무를 사랑하는 그루버, 트리플레이 주식회사 조혁균 대표 이사입니다. 트리플레이는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와 체험인 트리클라이밍, 밧줄놀이, 숲생태놀이, 짚라인, 빅스윙 등 숲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숲 놀이와 체험 분야에서 세계 최고 회사를 꿈꾸고 실천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상캠에서 먼저 체험 문의가 있었어요.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상캠퍼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 서울대 농대가 이렇게 변했는지 몰랐고, 특히 이곳의 나무가 이렇게 훌륭하지 그때 알았어요. 100년 가까이 된 나무가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는, 숲 놀이와 체험을 진행하기에는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고요. 그 이후에 상캠의 나무를 보살피고 위험목 등을 제거하면서 다사리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그루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년 차 그루버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그동안의 그루버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하면 정말 일찍 마감되거든요. 체험 당일에는 오는 아이들 보면 설렘이 느껴져요. 누군가를 설레게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이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설레는 걸 보면 저도 덩달아 설렘 수 있고요. 가을 땀방울이 만만치 않은데 아침부터 와서 줄 서서 설레는 표정으로 체험 순서 기다리는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는 한참 동안 침체된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많이 행복해하고 웃으시는 모습에서 역시 행복했습니다.







**상상캠퍼스 안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요. 특히 애정이 가는 나무가 있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무는 **청년1981 건물 앞에 있는 대왕참나무**예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인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마라토너 **故 손기정** 선수의 기념수가 서울 만리동의 선수의 옛 모교가 있던 곳에 심어졌는데요(현재는 손기정 체육공원), 그 기념수 이름이 ‘월계관기념수’라 월계수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 나무가 대왕참나무거든요. 그곳에 있는 나무보다 현재 상상캠퍼스에 있는 대왕참나무가 훨씬 큼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보존 가치가 있는 나무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죠. 이런 멋진 나무가 여기 있다는 것어요. 이것을 알리려고 제가 강의나 체험 행사 등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박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활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상캠퍼 오면 활력이 생겨요. 특히 낮에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노는 것을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더라고요.

**상상캠퍼스에서 앞으로 하고 싶으신 작업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상상캠퍼스에서 꼭 진행하고 싶은 작업은 **‘꿈의 상상 놀이터’를 만드는 일**이에요. 상상 캠퍼 내에서 트리클라이밍, 밧줄놀이, 짚라인, 몽키클라이밍, 네트플레이잉, 에코티어링, 숲생태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체험이 끝나면 항상 아이들이 많이 아쉬워해요. 그러다 보니 체험을 하신 분들이 상설로 운영되는 숲 놀이터가 상상캠퍼에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잔디에서 뛰어노는 게 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안타깝죠. 좀 더 재밌게 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꿈꾸고 상상하면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꿈의 상상 놀이터’를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청년1981 앞 정원이**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라 애정이 갑니다. 100년 가까이 된 대왕참나무에 제가 아침마다 트리 허그를 하거든요. 제가 진심을 다해 안아주면 그 나무도 저에게 진심으로 기운을 주는 느낌이 듭니다. 오래된 나무라 그런지 그런 기운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상캠퍼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혹은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상상캠퍼스는 저 개인뿐 아니라 저희 단체에도 큰 열정과 힐링의 선물을 준 고마운 곳이에요. 상상캠퍼의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2년 만에 국내 최고의 숲 놀이 및 체험 관련 업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의 발전을 이루게 해준 상상캠퍼스에 큰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후배로 들어오실 그루버들에게도 기회를 잘 얻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충실하게 누리면서,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 가을, Autumn

## 상상의 결실을 맺다

사계절의 상상캠퍼스가 모두 아름답지만, 천천히 계절의 변화를 한껏 느낄 수 있는 계절은 가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많은 것이 농익어가고 결실을 맺는 계절인 '가을'은 상상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생활문화, 디자인 사업과 결을 같이합니다. 문화예술의 결실이 가득한 이야기를 가을의 풍경 속에서 만나보세요.







## 숲에서 배우는, ‘교육’

코로나19 장기화로 나노사회화가 심화되는 시기, 서로를 다시 이을 수 있도록 ‘연결’이라는 주제와 ‘다양성’을 주제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모두의 숲 정규프로그램

너른 상상캠퍼스의 숲을 기반으로 진행된 어린이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위) 탐조책방 “상상탐조단”  
(아래) 그림 그리는 정원사 “나무 산책과 스템프”

(시계방향으로)  
소울크로싱 “시간탐정단: 시공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모험”  
비해피 “꼬마 도시 양봉가”  
포레섬 “상상의 숲 모험 놀이터”



# 양손학교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양손 가득 배움을 나누는’ 수업과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



(위)애니웨어 “몸으로 쓰는 일기”  
(아래)등글게 등글게 “패브릭 아트북 워크숍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위)사월의 들판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 - 연결된 우리”  
(가운데)씨드앤그로우 “미술심리배달 프로젝트: 꽃이 될 씨앗 상자”  
(아래)문화예술연구소 씨케이프 “심심(心心)한 옴니버스, 시간을 이어 달리는 그림책”





# 다양성 문화예술교육 < 더 나은 상상 >

다양한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된 경기도 내 18개 기관 대상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육



(위)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더 나은 상상 ‘내 목소리가 들리나요?’”  
 (아래\_좌)사월의 들판 “내 책을 만들고 싶어요-보이는 우리”  
 (아래\_우)우당탕탕 예술놀이단 “골목 찾아 떠나는 나와 너의 그림책 여행”



(시계방향으로)  
 아침 “오롯한 그대, 오소록 극장”  
 재재상점 “꿀벌 고마워!”  
 등글게 등글게 “업사이클 패브릭 아트북 만들기- ‘나’를 위한 더 나은 상상”



# 상상하는 사람들 5 \_ 씨앗을 꽃으로 만드는

1년차 그루버 씨드앤그로우 (김민지 대표)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씨드앤그로우의 김민지입니다.  
상상캠퍼스에서 신나게 노는 1년 차 그루버예요. '논다'고 표현한 이유는 놀듯이 즐겁게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경기상상캠퍼스를 처음 만난 건 2018년 포레포레에서였어요. 가족 자투리를 활용한 미니북 만들기 체험을 기획해 참여하면서 상캠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캠에서 열리는 행사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아이들과 놀러 오기도 했죠. 그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많은 것이 멈춰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그루버로서 한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가요?

얼마 전 마무리했던 <양손학교> 수업이 기억에 남아요. 13회의 장기 프로젝트였는데요. 참여자 모두 즐기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손학교>가 끝난 후에도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수업 이후 다른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양손학교>에 참여했던 분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가끔은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기도 해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발전되기도 하고요.





이번 <양손학교:미술 심리배달 프로젝트\_꽃이 될 씨앗 상자> 프로그램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했었거든요. 그 속에서 각자의 다름이 문제로 여겨지거나 분위기가 어색해지는 일 없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한 모두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았어요.

올해 진행했던 <양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저에겐 늘 청소년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요. ‘청소년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고 조금 둘러 갈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가정 내에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을 해봤더니, 가정 내에 있는 ‘여성’이더라고요. ‘어머니’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가장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경력 단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온 마음을 담은 선물 같은 시간을 드러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고, 어려웠던 마음을 회복한다면 그 후엔 그들의 옆에 있는 남편, 딸, 아들, 부모 등 다른 세대에게까지 좋은 마음을 전역시킬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재료를 준비하고 세팅할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듯 했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지도 함께 드리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당신은 누구입니까?’라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부터 ‘당신은 어떤 색깔입니까?’와 같은 조금은 추상적인 질문도 있었어요. 이런 질문은 어쩌면 대답하기 좀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참여자들은 자기만의 답을 찾고 나름의 표현을 해나가시더라고요. 사실,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하세요. 그런데 익숙한 재료와 함께 놓아드리니, 창작 활동과 함께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어떠한 조건을 갖추거나 결과물이 있어야만 교육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개인의 마음이 다듬어지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좋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양손학교> 수업은 예술 활동과 함께 나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치유가 이뤄졌던 프로젝트였어요.

**<양손학교>의 사회변화 프로젝트가 특이해요. 다른 교육과 어떤 점이 다를까요?**

사회변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막연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 보니, ‘사회’라는 건 결국 우리의 바로 옆 사람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단위인 가족이죠. 그래서 마지막 회차 때,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모시고 와서 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을 모시고 온 분들도 계셨고, 남편이나 자녀와 함께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참여자들이 <양손학교>를 통해 어떤 시간을 가졌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를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가족에게 전달하는 시간이었어요. 가족과 뽀뽀 뽀뽀서 웃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전염시키는 그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변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개인의 변화를 어디론가 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여자 중 한 분은 첫 시간에는 말씀도 없고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그랬는데, 마지막 자리에서는 모두에게 응원과 축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나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예요”라고 용기 내어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 된 거죠. 가진 역량이 많은 분이셨는데, 사회의 기준과 눈높이가 안 맞다 보니 표현을 못 하셨던 게 아닐까 생각해요. 참여자들 서로가 작은 율타리 역할을 해 주어서 그렇게 안전한 곳에서의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요.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놀이공원 같아요. 왜냐하면 지루할 틈 없이 즐겁기 때문이에요.

**지루할 틈 없는 상캠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작업이 있는데요. 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놀이터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 놀이터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참여자들의 창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물물교환 같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죠. 놀이터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기보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일본의 사례 중에 등교 거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출발해 매년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접 축제 공간을 만들고 각자 무엇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축제를 여는 곳이 있어요. 축제의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도 공동으로 결정하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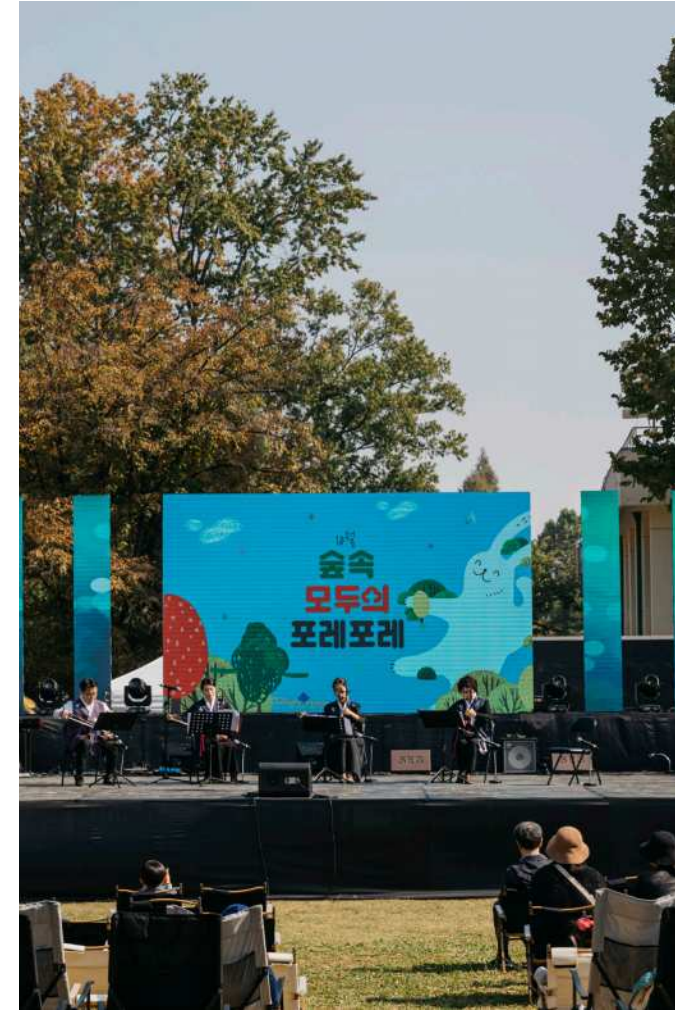
멋있게 지어진 곳도 아니고 나무판자로 지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없는 곳이거든요.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모두가 즐기는 공간인 거죠. 저도 실제로 가보지는 못해서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변화 또는 발전이 있는지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고, 그것을 참고 삼아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상캠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혹은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영동한 일들을 많이 꾸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해요. 저는 뭔가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즐거움을 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상캠 안에 계시는 분들, 혹은 방문하시는 분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해 <양손학교: 미술 심리배달 프로젝트\_꽃이 될 씨앗 상자>에 대한 피드백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참여자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결국엔 본인이 ‘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거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씨드앤그로우가 그런 의미거든요. 누구에게나 있는 씨앗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요. 그래서 큰 보람을 느꼈고, 앞으로도 상캠에서 멋지고 재밌고 즐거운 일을 많은 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 숲에서 일상을 만드는, '생활문화'



'함께하는 '동'호회로 더 '행'복해지기'라는 의미를 담은 '동행'은, 생활문화를 즐기고 싶은 3명 이상의 경기도민으로 구성된 경기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동호회를 의미합니다.



## 상상하는 사람들 6 \_ 숲속의 학교

생활문화동호회 대나무학교 (박지수 님)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활문화동호회 '대나무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대나무학교에서는 쪽 뺀어 있는 대나무를 쪼개고 배를 따서(속대를 떼어내는 작업을 '배 따다'고 표현) 살을 만들고, 생활에서 쓰이는 바구니나 더 나아가 오브제까지도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대나무공예 작가이신 한창균 선생님을 다른 기관에서 알게 되었고, 선생님을 통해 대나무 공예에 관심이 생겨 상상캠퍼스 내 동호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 대나무 공예에 어떻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제가 작년까지는 수원시 평생학습관에서 근무했었는데요. 그때 공방 담당자로 있었어요. 그때 한창균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하셨는데, 옆에서 그 수업을 보면서 대나무의 물성에 대해 관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작년 겨울쯤 한창균 선생님이 두 마디 대나무를 칼로 한 번에 쪽 내려쳐서 대반(대나무를 반으로 나누는 것)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일본의 무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멋있었고, 단단한 대나무가 유연한 물건으로 바뀌는 과정을 보면서 대나무를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죠.



### 대나무의 물성에 관심이 생겨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대나무의 물성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대나무는 뺀어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단단한 물성과 탄력을 가진 소재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얇은 살을 만들고 유연하게 형태를 잡아가는 과정이 재밌으면서도 많은 연습과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나무의 결을 따지면서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나무도 그렇긴 한데, 직진성 있는 소재이다 보니까 길게 쪼개는 식의 가공을 많이 하거든요. 단단하고 탄력성이 있어서 점점 더 얇게 살을 쪼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나무는 점점 얇게 하면 부러지거나 혹은 결이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가공이 어려웠거든요. 대나무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대나무 칼이라는 도구 하나로 큰 대나무에서 똑같이 반을 쪼개고, 그 반에서 또 쪼개고, 또 쪼개는 식으로 들어가면서 겉과 속의 힘의 균형감을 맞추는 거죠. 운동적인 균형 감각은 아니지만, 대나무의 예쁜 살이 나오게 하기 위한 그런 균형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이 공간에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수원 시민이다 보니 경기상상캠퍼스를 자주 오가며 알고 있었어요. 실제로 청년 문화기획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 다사리문화기획학교에도 참여했었고요. 거기에서 기획도 배우고 프리랜서 활동도 하다가 생활문화동호회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생활문화동호회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대나무 공예 특성상 꽤 넓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던 상황이라 수원 내에서 다양한 장소를 동아리 회장님과 한창균 선생님 등 몇몇 분께서 열심히 찾아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경기상상캠퍼스에 생활문화동호회가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대나무 공예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한창균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여 저 또한 집이 가까우니 무조건 배워야겠다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함께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주 대나무 공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학교에는 다양한 분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대나무공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창균 선생님을 중심으로 라탄 작업을 하시는 분들, 취미 생활을 이어가고 싶은 분들, 조각과 목공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대나무를 연결하고자 하는 분들 등이 있습니다.

**상캠프에서의 동호회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마디대 대나무를 찍치고 배 따는 과정을 연습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디를 지나가는 것이 꽤 두렵고 어려운 일이라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서 한창균 선생님께서 동아리 활동 시간 종료 후에 추가로 야외에서 연습을 해보자고 제안하셨어요. 다 같이 대나무를 들고 뒤쪽 정자로 향했습니다. 한여름이라 그때는 산모기가 극성이던 시기였어요. 얼마나 많이 뜯겼는지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자, 선생님께서 미안해하시면서 야외 추가 연습은 중단되고 말았죠. 저도 그날 모기에게 많이 물리긴 했지만 가끔 선생님께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제안하시는 활동들이 꽤 재밌어요. 그날 피를 뜯기면서 했던 연습을 통해 대나무 살 가공에 조금 자신감을 얻기도 했어요.

**상캠프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이나 수업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각자 만든 대나무 바구니들이 많은데요. 인고의 과정에서 나온 바구니들이 집이나 작업실에만 보관되어 있는 게 아깝죠. 한 번쯤 대나무 학교에서 만든 바구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같은 재료를 썼더라도 만든 사람마다 바구니가 조금씩 다른데, 이게 각자의 생각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재밌어요. 대나무가 나지 않는 수원이라는 곳에서 대나무 공예를 하는 사람들을 알리고 싶습니다.

또 대나무 옷칠하는 것을 배우는 수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후가공 없이 쓰지만 일본에서는 옷칠이나 다른 후가공도 많이 한다고 해요. 어떻게 다른 느낌이 날지,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나무의 물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대나무 공예를 시작했다고 하셨는데요.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일어난 변화 같은 게 있을까요? 심리적이거나 감정적, 혹은 일상의 변화라든가 하는 것ियो.**

생각해보니, 요즘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대나무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온 하루를 한 가지에 쏟아본 적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호회 활동가 선생님들 모두 대나무 작업을 하면서 마음 수련이 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또 그 수련의 시간만큼 기술이 좋아졌다가, 다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과정 자체를 견뎌내면서 스스로 나아가는 모습을 관찰하게 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해서 관찰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상캠프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으실까요?**

좋은 공간에서 대나무를 배우고 연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요즘엔 시간과 공간을 사용하는 데 꽤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상캠프에서는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더 좋아요. 더군다나 숲속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상캠프에 바라는 점은, 동아리 공간이 조금 더 유연한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공간마다 크고 목직의 책상이 있어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온몸을 사용하는 대나무공예 작업에는 조금 불편함이 있기도 해요. 사실 대나무로 더 다양한 작업을 하려면 긴 대나무를 가지고 해야 하거든요. 크고 무거운 테이블이 가끔은 방해가 되는 거죠. 둘러앉아 작업을 하면 좋는데 큰 테이블이 있다 보니 한쪽 공간밖에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제안해 주신다면, 대나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 상상실험실

상상실험실은 생생1990 1층에 위치한 공예 특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도자, 유리, 목공, 제작(3D 프린터, 레이저커팅기) 등 4가지 분야의 장비 활용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스튜디오는 디자인19782층에 위치한 디자인 특화 메이커스페이스입니다.  
3D 프린터, 리소 프린터, 플로터 프린터, VR 등 디자인 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을 만들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상상하는 사람들 7 \_ 손으로 빚어낸 3년의 시간

3년차 그루버 엔다스 (정명권 대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NDARS(엔다스)에서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정명권이라고 합니다. 엔다스 내에서 'N(엔)'을 맡고 있습니다.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상캠을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을 오늘 입고 왔어요. 인터뷰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3년 전쯤, 이 옷을 입고 강아지와 산책을 하다가 현재 저희 엔다스 사무실이 있는 생활1980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 하는 궁금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함께 왔던 지인이 이곳을 알고 있더라고요. 시작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주는 공간이라는 말을 듣고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우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레포레라는 축제를 보게 됐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이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곳이라고 느껴요.

다른 여러 장소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상캠처럼 특이한 공간도 처음이어서 저에게 새로운 경험과 많은 기회를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다사리문화기획학교라는 문화 기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단순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팔더라도 좀 더 가치 있는 물건을 제작하고 스토리를 담아서 사람들과 교감을 해야겠다는 것도 느끼고요. 제품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많이 오가는 질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루버로 지원했어요. 상캠은 저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험을 하게 해준 시발점 같은 곳입니다.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그루버로서 하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2021년도에 했던 상상실험실 운영이에요. 상상실험실 운영을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어린이들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상상실험실에 놀러 오는 어린이들과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놀기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 교육이나 전시와 같은 다양한 일을 기획해볼 수 있었어요. 사실 힘든 일도 많았는데, 담당 선생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다른 그루버분들과도 협력하면서 좋은 에너지를 얻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실험실 운영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피, 땀, 눈물" 같아요. 이 표현이 그때 이해가 됐어요. '이런 노력을 피, 땀, 눈물이라고 하는 거구나' 싶은 경험을 했죠.





**2022년에는 그루버 협력 프로젝트로 <숲속 도깨비> 참여 중이시네요? 이걸 어떤 프로젝트죠?**

<숲속 도깨비>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헬러윈이라는 외국의 문화를 한국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요즘에 K-컬처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그래서 외국 문화를 따라 할 게 아니라, 한국식의 축제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루버 양유리 대표님과 영청이 함께하고 있고, 총괄 기획자는 양유리 대표님께서 맡고 계세요. 사실 다소 제한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가치 있게 느껴지는 작업입니다. 저희 엔다스는 입주 기간이 올해로 마감되는데요. ‘마지막 협력 프로젝트가 가치 있게 마무리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스케치북 같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자유롭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저의 성장을 위한 도약에 도움을 준 기관이 바로 상상캠퍼스예요. 제가 상상한 것들이 단순히 저 혼자만의 상상화로 그치지 않고, 여러이 함께 빈 스케치북에 다채로운 색으로 상상을 현실화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상상캠퍼 입주하시기 전에는 상상한 것을 현실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나요?**

네, 아무래도 많았죠. 현실적인 문제로 상상을 자유롭게 펼쳐보지 못했었어요. 아무래도 기관에서는 수익 사업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수익적인 성과가 나지 않으면 눈치가 보인달까요? 그런데 상상캠퍼에서는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어도 다음을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게 응원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기대 이하의 결과가 도출되었다라든 용기 내어 다음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었어요.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사실 상상캠퍼는 모든 곳이 다 이뻐요. 그런데 제가 힘을 때마다 위로받았던 곳이 바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여기거든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생활1980 건물 3층 테라스요. 언젠가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여기 앉아서 낮을 놓고 바깥을 바라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바람이 불어 생기는 소리를 듣거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심신이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을 때 이 공간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아서 저한테는 의미 있는 공간이에요. 일에 지쳐서 여유가 없을 때 어쩌면 저에게 잠시의 여백을 주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캠퍼에서의 입주 기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주를 마치는 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지금 상캠퍼를 벗어나 독립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제품 판매, 교육/체험도 함께 진행하다 보니 각각의 특성에 맞는 홍보 전략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 부분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더불어 제품 개발에 더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캠퍼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혹은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앞으로 입주할 후배 그루버들에게는 이곳의 시스템에 안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어지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도전하려고요. 이곳 생활이 편하다고 해서 안주한다면 분명히 성장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의 다른 업체 대표님이나 기관 선생님들, 도민분들께서 오며 가며 해 주시는 말들에 귀 기울이면서 늘 자극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을 개척해 나가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기관에 의지해도 안 되고 다른 입주 기업 선생님들한테 기대해서도 안 되고요. 이곳 안에서뿐 아니라 바깥에서도 일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쌓은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좀 더 좋은 기업이 되어 졸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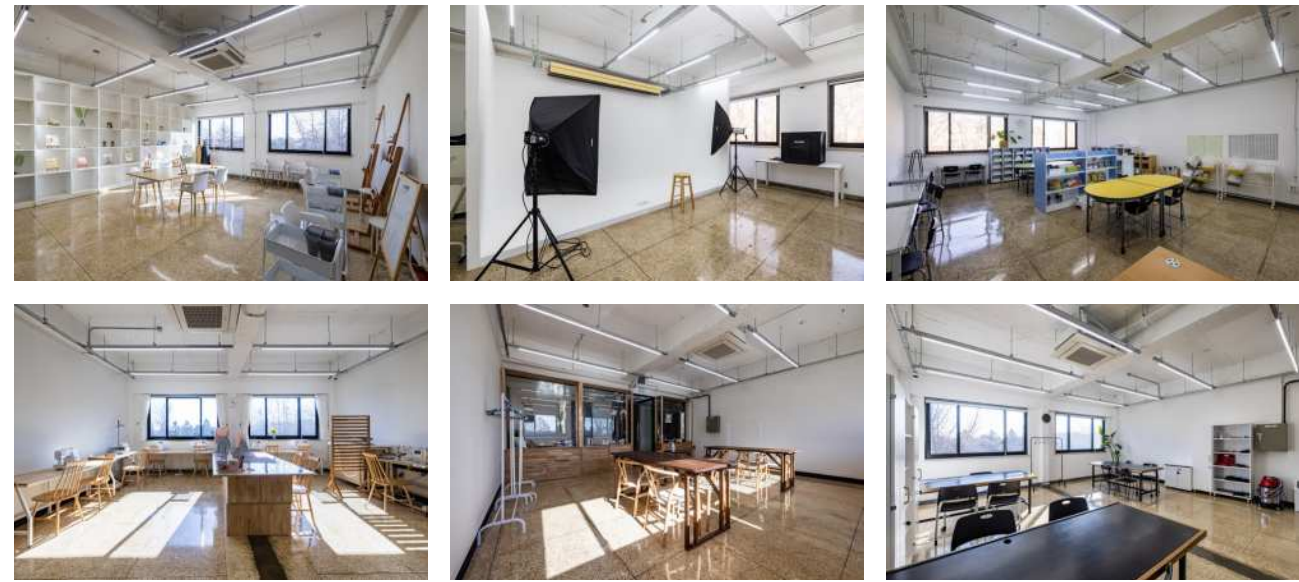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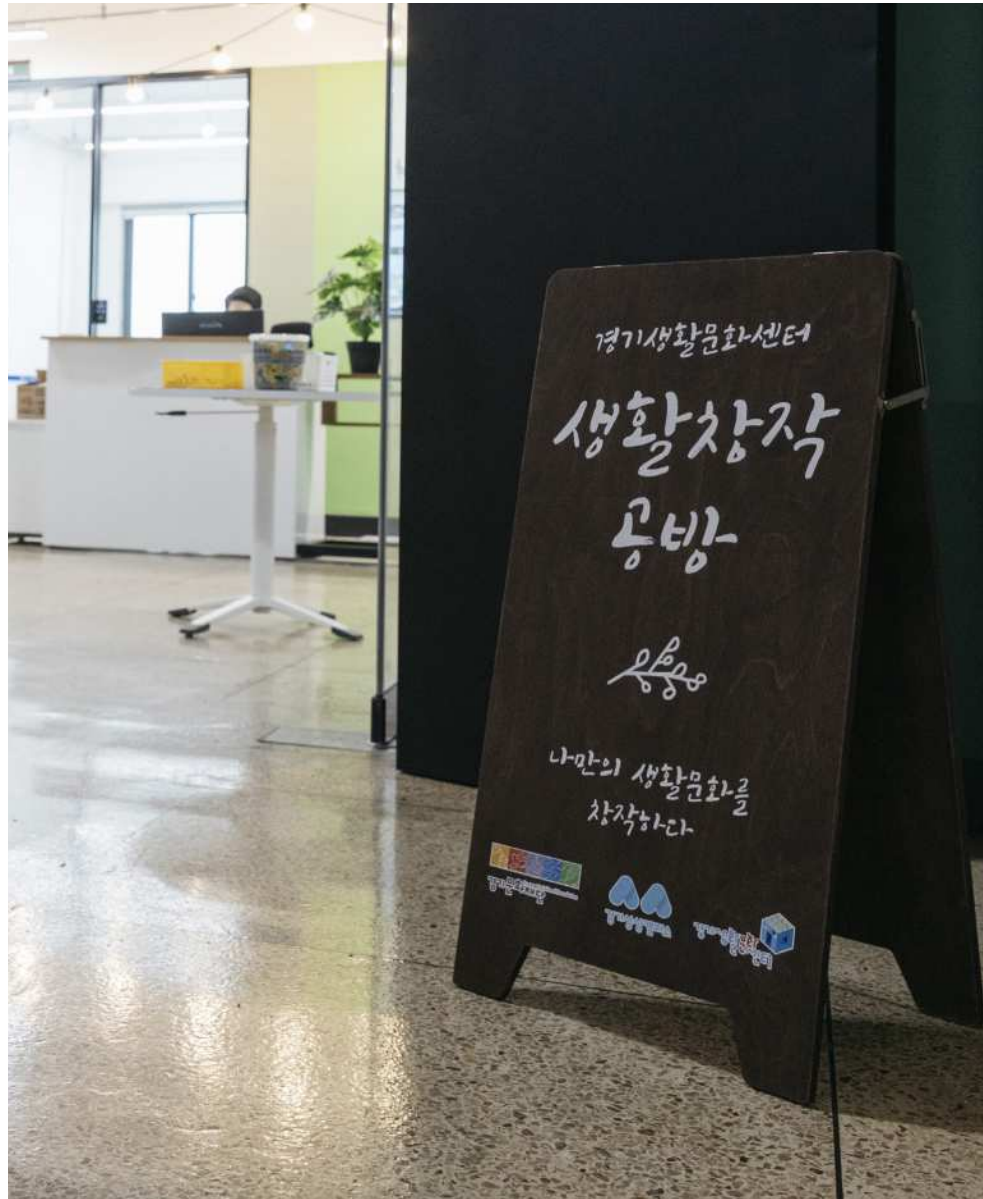
하나 더 덧붙이자면, 저는 상캠퍼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배운 게 기관 언어거든요. 기관과 소통을 잘하고 싶고 지속적으로 일을 함께할 계획이라면 기관 언어를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캠퍼의 선생님들께서 초심자인 저를 잘 도와주셔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런 공공기관에 입주해서 활동할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이 기회에 기관 언어를 배우는 데도 집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생활창작공방

생생1990 3층에 위치한 생활창작공방은 다채로운 생활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생활문화 모임 대관 및 도민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위)커피공방  
(아래\_시계방향으로)드로잉실/사진촬영실/어린이창작공방/취미공방/직물공방/재단공방



# 상상하는 사람들 8 \_ 생활문화를 창작하다

생활창작공방 운영단체 바바야가 (한지영 대표)



## 자기소개 및 단체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바바야가'지기 한지영입니다. 캐릭터 인형을 손뜨개로 제작하고 동화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인형 연극 활동과,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생활 소품 제작 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바야가'라는 말은 동화 속에 나오는 이름인데요. 이 동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새엄마로 인해서 아이가 힘들어졌을 때 친모가 돌아가시기 전 받은 애착 인형을 통해 역경을 이겨나가는 내용이에요. 바바야가는 마녀인데요, 주인공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줬던 마녀입니다. 그 마녀 이름을 따서 저희 단체 이름을 '바바야가'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인형이 좋아서 시작한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순히 인형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로 웨이스트 생활공예로 천연비누/샴푸 만들기, 헌 옷을 활용한 생활 소품 만들기, 지구 환경을 위한 재활용 공예 등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문화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이 공간에서 모임과 수업을 진행하게 되셨나요?

사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여기 수원 서둔동이에요. 성인이 되고 타 지역으로 갔지만 이 공간이 이렇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언젠가 들어와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다가 상캠퍼스에서 열린 호박마켓이라는 행사를 통해 처음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로 웨이스트 관련해서 저희 회원들과 함께 만든 생활 소품, 뜨개 소품 등을 판매했었어요. 들어와서 실제로 활동해보니까 좋은 공간이 너무 많고, 안정적인 수업 공간, 수업 기자재, 수업 재료 및 수강생 모집 홍보 등의 지원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수업한다면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지원 사업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기회가 되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활창작공방에서 하신 활동이나 수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강생분들이 인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끼셨던 사례가 좀 있었거든요. 이를테면,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인형을 만들면서 그 행위 자체에 집중할 수 있었고, ‘나’라는 존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공방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계속 활동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사로서 보람을 느꼈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곳에 오면 인형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진을 찍거나 안기도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발도르프 인형 수업은 공 인형부터 성인까지를 만들어내는 긴 과정의 수업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을 인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발도르프는 슈타이너의 인지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제 인형 수업인데요. 친환경 소재를 쓴다는 것도 특징이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인지학이라는

학문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예요. 심리 치료적인 부분이 많은 공예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바바야가’ 동화에서 주인공 아이가 애착 인형을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아간 것처럼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인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하기도 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어 가기도 하세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공 인형부터 성인 인형을 만들기까지 총 25회차의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 긴 과정에서 점점 자기 모습이 인형에 투영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내 손끝의 바느질을 통해 나와 비슷한 인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려드리고 옆에서 지켜보다 보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죠.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상상캠퍼스는 저에게 **엄마** 같아요. 사실 이 동네는 저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래 살았던 곳이라 편안해서 엄마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신이 넘은 늦은 나이에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는 저를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엄마’라고 말하고 싶네요.

**앞으로 상캠에서 하고 싶은 활동 또는 수업이 있다면?**

캐릭터 인형으로 연극을 하고 싶어요. 또한 제로 웨이스트 공예 활동으로, 헌 옷을 이용한 다양한 생활 소품 수업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 보자면, 상캠에 유희 공간이 많잖아요.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인형 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사실 경기도에 ‘인형 박물관’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거든요. 상캠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가족 프로그램으로 ‘연극 인형 만들기’ 같은 것을 진행해서 전시도 하고, 스토리텔링을 엮어서 연극도 하고요. 인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개발하고 싶어요. 아이들뿐 아니라 전 연령을 아우를 수 있는 인형 체험 콘텐츠를 만들어서 많은 분이 각자의 생애를 인형을 통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지인,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자율 주방 공간이 가장 아끼는 공간입니다.** 사실 음식을 나눠 먹는다는 게 교류잖아요. 특히 함께 만들어 먹는 음식이요. 함께 요리해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좋은 대화도 하고 교류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주방이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캠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수강생분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으면서 인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면 직업적인 소명감을 느끼는데요. 더 많은 분이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인형 전시, 체험, 연극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숲에서 창조하는, '디자인'

경기 디자인 특화 공간인 디자인1978 건물을 거점으로  
도내 디자인의 개발과 교육, 유통 확산을 진행하였습니다.

1층은 전시장·아트샵·라이브러리를 통한 디자인 공유·확산의 기능을,

2층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교육실 운영을 통한 교육·제작의 기능을,

3층은 디자인 기반단체가 입주하여 콘텐츠 연구와 개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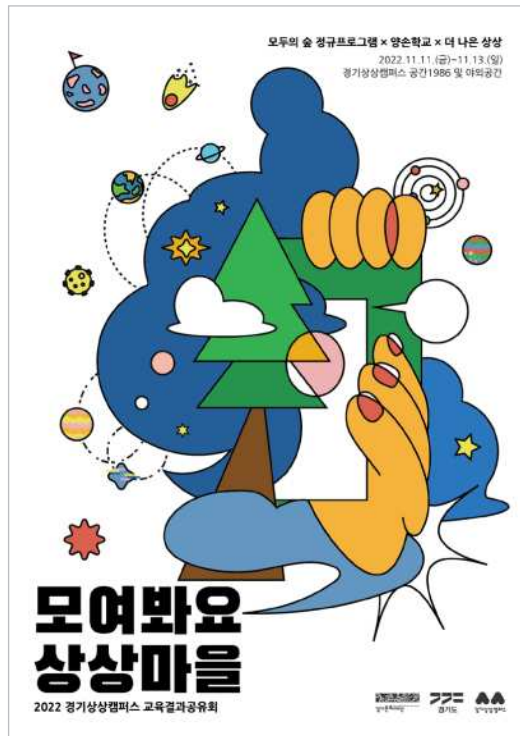


## 경기 로컬 굿즈 개발 <청년마을상점> 프로젝트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문화원연합회가 함께 진행하는 경기도 지역 굿즈 개발 사업

- 청년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굿즈 제작을 지원하는 '청년마을상점 해커톤 프로그램'
- 지역 내 선후배 마을 디자이너를 연결하는 워크숍 '로컬+메이커스'





### 지역대학 산학협력 프로젝트

지역대학인 수원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 협력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경기도 내 청년 디자이너들의 활동 토대 마련

- 그루버 매칭 사업, 경기상상캠퍼스 대표 캐릭터 개발, 홍보물 디자인 등

### 경기 디자인 축제

디자인1978을 거점으로 디자인 전시부터 강연, 워크숍, 공연, 소상공인 플리마켓 등 디자이너·디자인 소상공인·도민 모두가 모여 즐기는 축제





## 디자인1978 공간 활성화

도민들의 디자인 문화 경험 및 디자인1978 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 및 교육 운영

- 경기상상캠퍼스 그루버 협업 팝업 전시 <그루그루팜>, 시민 디자이너 교육 <시디존 학교>
- 경기도를 주제로 한 디자인 전시 <숨은 그림 찾기>



# 상상하는 사람들 9 \_ 상상을 디자인하는

2년차 그루버 집우집주(김희정 대표)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공간 디자인, 공간 기획 및 큐레이팅을 하고 있는 디자이너 김희정입니다. 주거/상업 공간 디자인, 그리고 근래에는 전시 공간 디자인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공간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상상캠퍼스를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셨나요? 어떤 이유로 그루버로 지원하시게 되었나요?

공간 디자이너로 2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보기도 했고, 대기업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파트너 자리까지 맡아 일했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고 약간은 침체되고 힘든 시간을 겪고 있던 때에 친한 후배가 상상캠퍼스를 알려줬어요. 디자인 입주 단체 모집 소식을 접하고 조사를 해보니 예전에 서울대 농대였던 장소더라고요. 재사용, 재활용, Re-design에 관심이 많고 빈집 프로젝트를 흥미롭게 진행하고 있는 디자이너로서 상캠 공간 자체가 저에겐 너무 흥미로웠어요. 때마침 공간 디자인 회사를 준비하던 때이기도 했고요. 입주 단체 인터뷰를 하러 와서 실제로 공간을 마주했을 땐 더 좋아하게 되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감재가 브라운스톤이거든요. 대다수의 건물이 빨간 벽돌로 되어 있었는데, 외적인 부분만 역사성을 가진 게 아니라 내부 공간 또한 리디자인(Re-design)해서 사용하고 있었죠. 과거의 것을 조금 만져서 일종의 파티션 겸 전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개념을 갖고 공간을 운영하는 곳이라면 입주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죠.



## 경기상상캠퍼스에서 그루버로서 하신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떤 것인가요?

입주 단체 전시 <그루그루팜>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30팀이 넘는 그루버들의 제품이나 콘텐츠를 전시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사실 단체가 너무 다양하고 많다 보니 영상, 사진, 굿즈 등 전시 품목들도 다양해서 기획 단계에서 조금 힘들기도 했습니다. 전시가 6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데 세 번에 나눠서 진행되어야 했고, 5주마다 한 번씩 전시가 바뀌어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사실 예산이 많이 없다는 것이었죠. 상상캠퍼스의 가장 큰 모토가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 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은 키워드인데, 이걸 잘 드러내는 작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예전 서울대 참고 6~7군데를 다 뒤져서 전시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물건을 찾아냈어요.





ESG 개념도, 재활용한다는 것 또한 의미가 좋았지만 사실 전시장에 들여놓았을 때 너저분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 중요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창고에서 찾은 물품들을 씻고 갈았어요. 새로 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것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죠. 이 두 종류의 물건, 즉 Old & New를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래된 물건을 좋아해서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자개장, 장롱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오래된 물건만 있으면 집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가구와 모던한 오브제들을 잘 믹스매치하면 집안 분위기가 바뀌기도 해요. <그루그루팜>도 이런 개념으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성한 공간에 어떤 그루버의 작품/제품을 배치할지와 같은 위치 선정에 대한 고민도 중요했구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열었던 전시였다 보니 많은 분이 찾아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기억에 가장 남습니다.

####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상캠프는 저에게 인생 2막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시기를 지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해보려고 하던 때에 만난 곳이거든요. 사실 상캠프에 입주하지 않았다면 용기 내서 디자인 작업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좋은 조건과 환경, 공간이 제가 다시 일어나 인생 제2막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준 아주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획자, 컨설턴트, 디자이너, 교육자 등 다양한 분야로 제 시야와 행동을 넓힐 수 있게 도와주었던 곳입니다.

#### 상캠프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작업은 사실 빈집 프로젝트예요. 상캠프에 입주하면서부터 제가 아주 눈여겨본 건물이 있어요. 디자인1978 바로 옆에 있는 천연섬유실험동인데요. 이 건물을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안에 너무 들어가보고 싶어서 상캠프 내에 거의 모든 부서에 다 전화해서 요청했었어요. 결국 안전상의 이유로 못 들어갔지만요. 단층 건물에, 옥상도 있고, 안에는 모두 실험실이었다 보니 공간이 방처럼 나뉘어 있는 거예요. 전시 공간이나 아티스트 레지던시, 복합 문화 행사 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기획 욕심이 났죠. 상캠프에서도 사실 이런 기획 단계에서 인력이 필요할 텐데, 만약 빈집을 활용하는 기획이 있다면 꼭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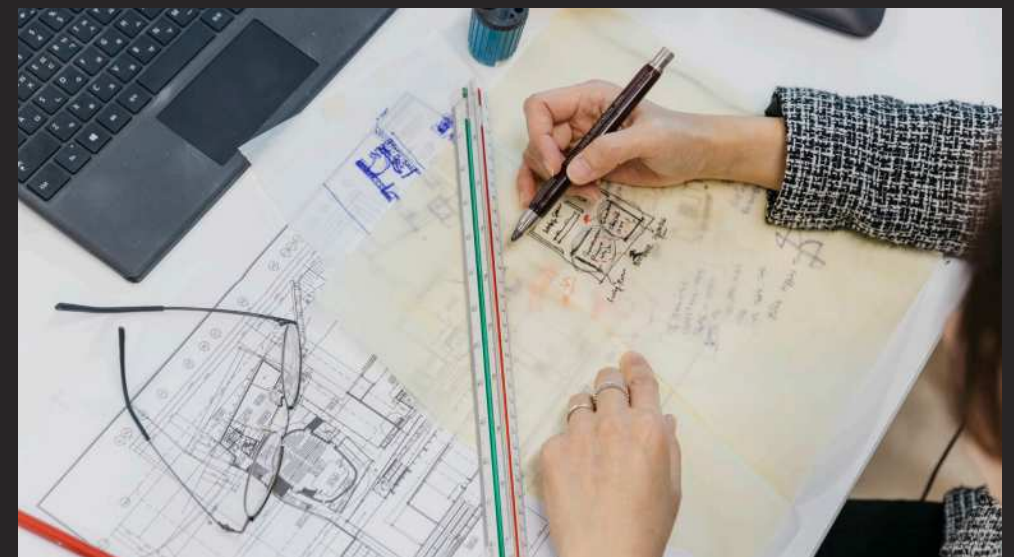
####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전 상상캠퍼스가 일종의 마을같이 느껴집니다. 어느 부분은 작은 마을처럼 웅기종기 모여 있는 곳도 있고, 높은 장소나 숨고 싶은 비밀 장소 같은 조용한 후면, 골목길 같은 곳도 있고요. 오늘 나의 감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어떤 날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광장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혼자 숨고 싶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이 모든 모습을 갖추고 있는 장소가 상상캠퍼스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전면보다는 조용한 후면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디자인1978 건물 옆에 있는 천연섬유실험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 앞에 있는 대화의 정원 벤치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 마지막으로, 상캠프에 하고 싶은 말이나 바라는 점, 혹은 후배 그루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루버의 입주 기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3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창업 단계의 회사에겐 짧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뭘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가서 다시 독립해야 하는 느낌이라 좀 더 입주 기간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단체를 모집하는 것의 의미는 인큐베이팅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좋은데, 단체 수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개발되지 않은 상캠프 내의 공간도 개발해서 더 다양한 단체가 입주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을 만한 장을 만들어주는 것, 이게 상캠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겨울, Winter

## 상상을 공유하다

겨울의 상상캠퍼스는 잎이 모두 떨어져버린 숲속 공간이 다른 계절에 비해 황량해 보이기도 하지만, 각 공간에서는 한 해 동안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의 결과를 공유하는 모습들로 온기가 가득한 계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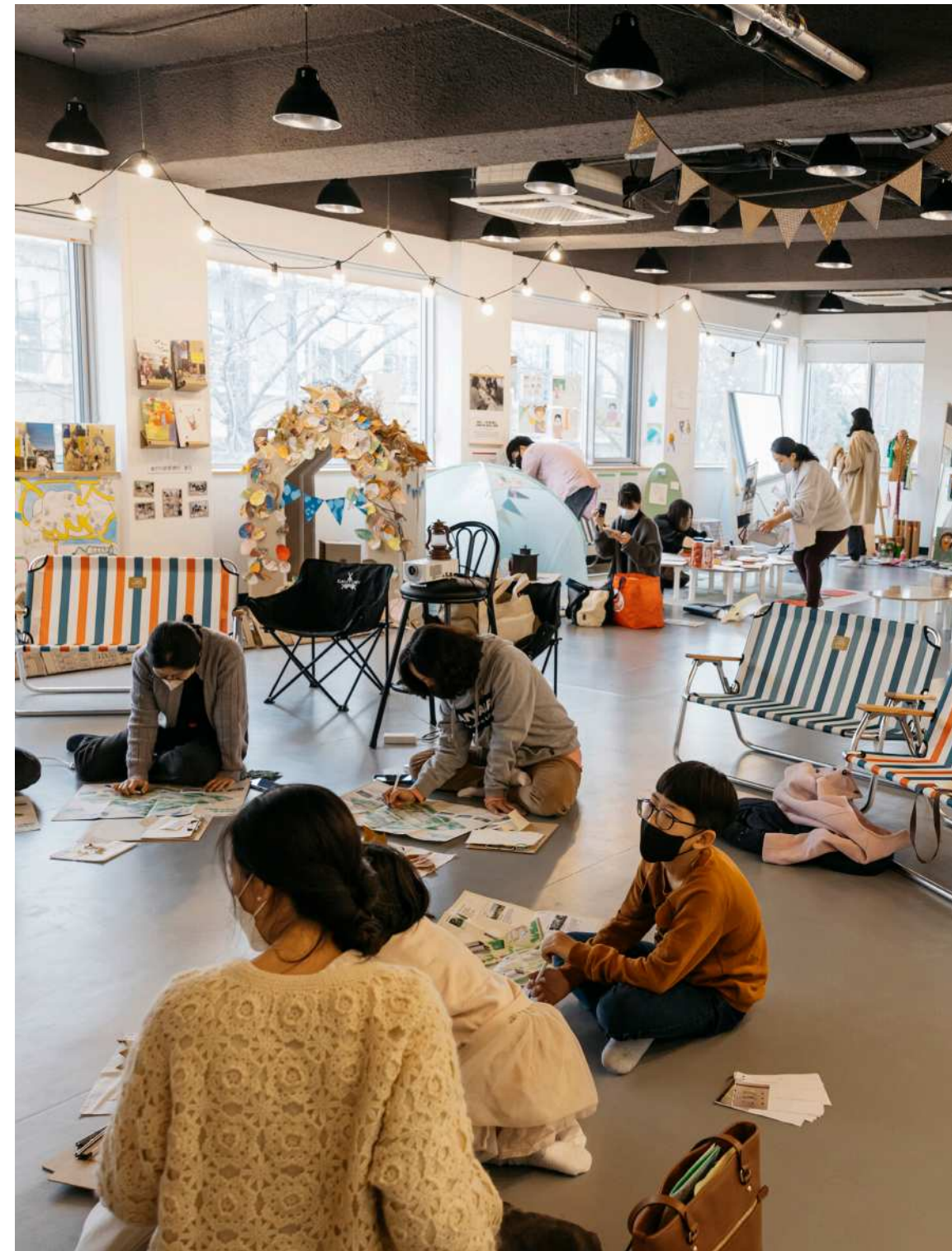
잎이 떨어진 자리를 소복한 흰 눈이 채우면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계절 '겨울'. 한 해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의 공유회를 겨울의 풍경과 함께 만나보세요.





# 경기상상캠퍼스 교육결과공유회 <모여봐요 상상마을>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공간1986이 배움이 가득한 '상상마을'로 바뀌었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된 '모두의 숲 정규프로그램', '양손학교', '더 나은 상상' 프로그램의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 생활창작공방 장날

생생1990 3층에 위치한 생활창작공방에는 커피, 직물, 재단, 사진, 드로잉 등 다채로운 생활문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12월 3일, 생활창작공방의 프로그램들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생활창작공방 장날>을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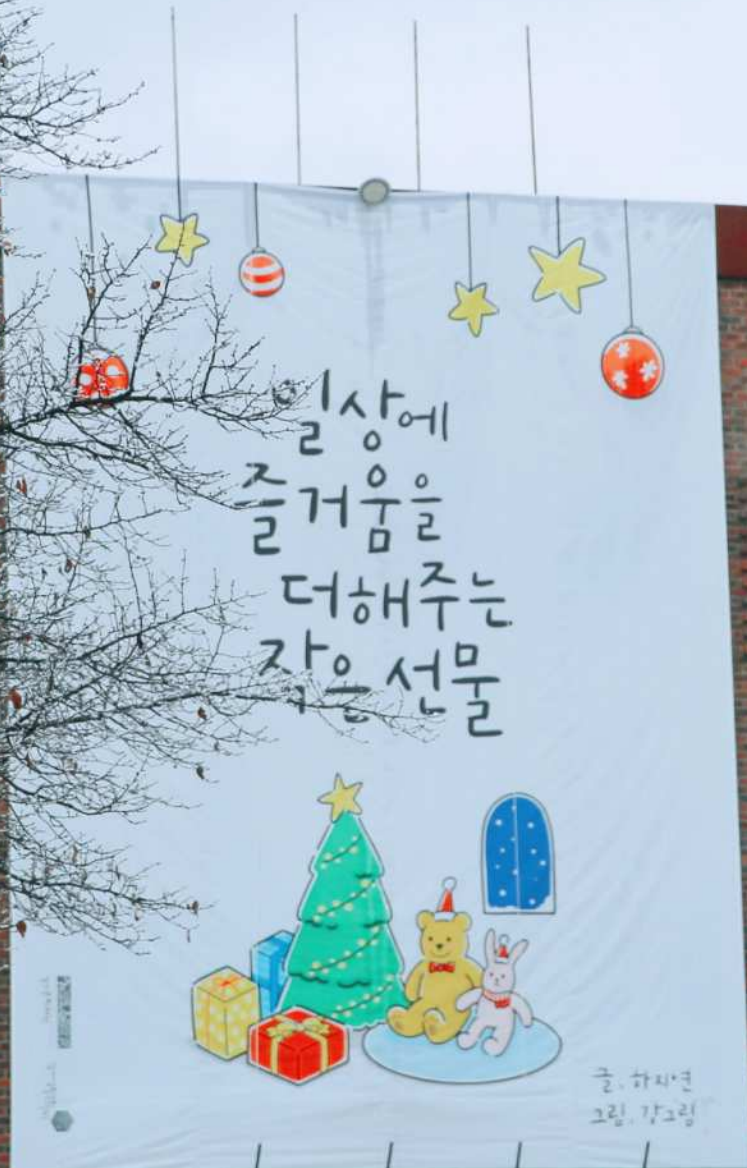


# 경기상상캠퍼스 X 수원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산학협력프로젝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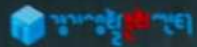
수원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와의 산학협력프로젝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상상캠퍼스 입주단체 그루버 브랜딩부터 굿즈 제작까지의 과정을 전시하였습니다.







생생1990





# 상상하는 사람들 10 \_ 상상을 그리는 사람들, 상상그리너

대학생 서포터즈 우수활동자 (이현경, 최정연, 문규연)



나를 되돌아보며 성찰의 시간도 가지고, 다른 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많은 이야기가 오갔지만, 그중에서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해 지금에서야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라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신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상상캠퍼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상상캠퍼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유와 힐링 그리고 치유의 공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상캠퍼스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그저 힐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사를 취재하고 경험하면서 '와, 탁 트인다.'라는 생각이 매번 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자유, 힐링, 치유라는 세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 혹은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색의 동산부터 시작해 숲속 어울마당과 하늘정원으로 가는 코스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공간들이기도 하고요. 사색의 동산은 경기상상캠퍼스 중심에 있는 너른 잔디밭인데요. 이 공간에서는 단어 그대로 사람들이 해먹에 눕거나 돛자리, 텐트를 깔아두고 사색에 잠기곤 해요. 사색에 잠기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다 숲속 어울마당과 하늘정원을 느리게 걸으며 자연을 몸으로 감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우거진 숲길을 걸으며 만끽할 수 있는 청량한 하늘과 들이마실 수 있는 맑은 공기는 정말 환상적이기 때문이에요.

간혹 주말에 열리는 행사의 일환으로 포토존이 구성되어 있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해주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여전히 그 사진을 소중한게 간직할 정도로 위 코스에서의 시간은 무척 특별했어요. 그래서 경기상상캠퍼스의 숨겨진 힐링 스팟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답니다! 힐링이 필요하시다면 경기상상캠퍼스로 놀러 오세요! :)

## 최우수상\_이현경

**상상그리너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어떤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나요?**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원 지역 내에 이러한 공간이 있다는 점을 처음 알게 된 후 상상캠퍼스에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제가 평소에 추구하는 가치와 유사한 경기상상캠퍼스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체험과 창작이 가능한 공간이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상상그리너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이 있나요?**

사실 상상그리너로 활동하는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아 고르기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요. 지난 8월 27일에 열린 축제 '포레포레'가 생각납니다. 여름인 경기상상캠퍼스가 주는 푸릇푸릇함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도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양손학교 프로그램 중 패브릭 아트북 워크숍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 우수상\_최정연

### 상상그리너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어떤 이유로 지원하게 되었나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상그리너 1기 모집공고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경기상상캠퍼스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게다가 1기 모집이라고 하니 잘 해내지 못할까 싶어 걱정되었어요. 서포터즈 활동이 처음이기도 했고요.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은 경기도 대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말에 용기를 냈어요. 저는 문화콘텐츠학 전공이기도 하고,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또, 대학교가 연상되는 '경기상상캠퍼스'잖아요. 저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원하면서 경기상상캠퍼스를 찾아보니 되게 매력적인 공간이더라고요. 서포터즈 활동으로 제가 좋아하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이런 제 진심이 통했는지, 상상그리너 1기로 선발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 상상그리너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날은 7월 아주 뜨거운 날에 진행되었던 발대식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선물이 가득 담긴 가방을 주셨어요. 머그컵, 손수건, 친환경 펜, 엽서, 스티커 등이 있었는데 선물 구성도 하나하나 신경 쓰신 듯 보였어요. 받자마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상상그리너 활동을 하며 가장 좋았던 점이 관계자들이 정말 좋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첫 서포터즈다 보니 긴장이 되었는데, 분위기를 편하게 해 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발대식을 마치고 다 같이 상상캠퍼스를 돌며 건물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그때 전 푸фф푸트하고 예쁜 풍경에 반해버렸어요. 그날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 상상캠퍼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모두의 숲'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이걸 상상캠퍼스를 소개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이것보다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상상캠퍼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연(숲)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았어요. 숲은 힐링과 치유의 공간으로 여겨지잖아요. 상상캠퍼스의 자연은 물론, 상상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들도 많은 사람에게 힐링과 치유를 줄 거예요. 그래서 상상캠퍼스는 한마디로 '모두의 숲'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 혹은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교육1964 앞에 '교육 아틀리에: 대화의 정원'이라는 곳이예요. 상상캠퍼스가 엄청 넓잖아요. 제가 엄청난 길치라서 항상 지도를 보고 다니거든요. 그날은 지도 없이 발길이 닿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딱 도착한 곳이 대화의 정원이예요. 벤치에 앉아 따뜻한 바람을 느끼면서 포장해 온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옆에서는 아빠와 아들이 배드민턴을 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게 정말 좋았어요.



### 상상그리너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무엇인가요?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지만, 저는 '상상투게더' 축제가 기억에 납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아서인지 행사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 위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상투게더'는 반려견을 위한 행사였을 뿐 아니라 가족분들까지도 같이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또 당시 영상으로 취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평소에 보지 못한 강아지들의 표정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해단식 날도 기억에 납니다. 무더웠던 여름, 발대식에 참여했을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날이 추워지고 해단식이 찾아왔더라고요. 그사이에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좋은 경험을 많이 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해단식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상상캠퍼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상상 이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평소 타 행사를 참여하고 느낀 점은 특정 연령층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기상상캠퍼스 취재를 위해 여러 행사에 참여했었는데요. 예상과 달리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노소 가족 모두가 방문했을 뿐 아니라 기획된 행사 및 프로그램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구성되어 있어 상상 이상의 반전을 느껴서, 저에게 상캠퍼는 '상상 이상'입니다.

###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애정하는 공간 혹은 추천하고 싶은 공간이 있으신가요?

상상캠퍼스 안에는 많은 건물이 있지만, 저는 잔디마당이 가장 좋습니다. 항상 방문할 때 잔디마당을 마주하게 되는데, 잔디마당에서 놀고 있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가장 먼저 반겨주었거든요. 게다가 행사를 취재하다 힘들 때 잔디마당에 앉아 있기도 했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 힐링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방문하시는 분들께 잔디마당 뿐 아니라 다양한 경기상상캠퍼스 건물들을 둘러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다시 봄, Spring Again

## 다시, 상상

사계절의 끝에 있는 겨울, 코끝까지 시린 계절이 이어지는 상상캠퍼스를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무 끝자락에 움튼 꽃봉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던 봄과 도민들과 호흡했던 여름, 농익어가던 가을을 지나 코로나19라는 겨울을 만났지만 경기상상캠퍼스는 다시금 돌아오는 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꽃잎과 나뭇잎, 낙엽과 눈을 거쳐가며 매 계절 그 순간에 충실한 모두의 숲처럼,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상상캠퍼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 상상하는 사람들 11 \_ 다시, 봄으로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주흥미 본부장)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본부장 주흥미입니다.

## 상상캠퍼스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제가 문화예술본부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기회가 있어 상상캠퍼스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2019년 가을이었습시다. **울창한 나무들이 단풍에 물들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만추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했습니다.** 가을의 한복판이었습시다.

## 상상캠퍼스에 대해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저에게 경기상상캠퍼스는 ‘사계’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일상적으로 사계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계절을 느끼기 위해서는 보통 시간과 노력을 들여 다른 곳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곳에서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하루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사계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에 둘러싸여 있으니 그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상상캠퍼스 공간의 많은 곳에 스며든 자연의 모습이 각양각색으로 아름답습니다. 이를테면 생생1990 건물 앞에 산수유나무가 있는데요. 산수유나무는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에요. 소리 없이 폼터가 목련, 벚꽃이 사색의 동산 쪽으로 만개할 즈음에 산수유는 또 소리 없이 생명을 다하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재미도 있고요. 옛말에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푸른 나무 그늘과 향기 머금은 풀이 꽃보다 나올 때’가 바로 초여름, 6월이라는 뜻인데요. 상캠의 여름 풍경은 이 말을 떠올리게 하죠. 가을은 또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상상캠퍼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입니다. 이곳은 옛 서울대 농대를 리모델링한 공간입니다. 옛 모습을 해치지 않으려 조심스레 리모델링했고, 현재 많은 도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곳을 ‘미래의 캠퍼스’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문화예술본부장으로 오신 지 2년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그동안 상캠에서 근무하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혹은 기쁜 순간을 함께한 일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두고 사실 우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바깥의 자연을 느끼지 못한 채 감감할 때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문화팀은 특히나 더 그래요. 이 아름다운 공간을 운영하는 부서인데 막상 직원들은 계절 속에 드러워진 자연을 즐기지 못하죠. 사실 그건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도민들이 이 공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으려면 그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 것이 또 우리 일이기도 하죠. 그래도 가끔은 직원들도 상상캠퍼스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봄이었어요. 옆 팀 직원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 따라와 보세요.” 하고 두 명의 동료들과 함께 생활1980 건물 3층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테라스가 있잖아요. 그 테라스에 섰는데 거의 눈앞에 다가올 만큼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시다. 벤치에 앉아서 잠시라도 꽃구경을 좀 하라고 권유한 후 저는 잠시 자리를





피해 멀리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뒷모습에 “행복하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간의 공기와 햇살, 직원들의 뒷모습이 강렬하게 남아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기억이 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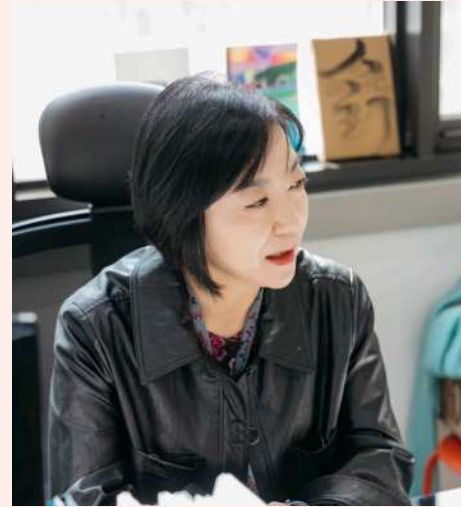
또한, 자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자연, 인간, 일상, 예술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꿈꿀 수 있다는 게 상캠프에 있으면서 받는 가장 큰 복인 것 같습니다. 만약 일터가 다른 공간이었다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많은 것들을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상상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이 어디인가요?**

가끔 제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디자인1978 건물 1층 전시장이예요. 전시장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유리 바깥의 풍경, 그러니까 건물 후면에 자리 잡은 풀들이 다 보여요. 그걸 멍하니 바라보면 휴식이 되더라고요. 그 풍경 자체가 예술 작품처럼 느껴져서 좋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상상캠퍼스의 미래를 어떻게 꿈꾸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경기문화재단 비전이 “일상이 문화로, 예술이 일상이 되는 문화시민 구현”이거든요. 이 맥락과 비슷한 생각인데,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꿈꾸는 곳, 그리고 도민들과 일상적으로 소통을 하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민들 각자가 취득하는 예술 경험은 다양하잖아요. 어떤 예술 작품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 아니면 유명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고요. 하지만 반드시 ‘수월성’에 근거해서 예술적 감동을 받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동하는 경로와 경위는 매우 다양하다고 봐요. 사실 예술에서 ‘수월성’이라는 잣대도 단정하기 어렵고요. 문화 자치 시민으로서의 수준이 향상되어서 시민 각자가 느끼는 문화예술에 대한 감동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상상캠퍼스의 어느 숲길을 걸어가다가 들리는 새소리를 통해서도 예술적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동료 간의 대화에서 느낄 수도 있고요. **언제 어디에나 예술의 순간은 늘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경험의 접점이 상상캠퍼스 공간에 숨 쉬기를 바랍니다.**



**상캠프가 문화예술 향유의 통로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캠프이라는 공간 자체가 친근하게 예술을 소개하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연 속에서의 예술은 그 아름다움을 더 확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 향유의 통로인 상캠프에 놀러 오시는 도민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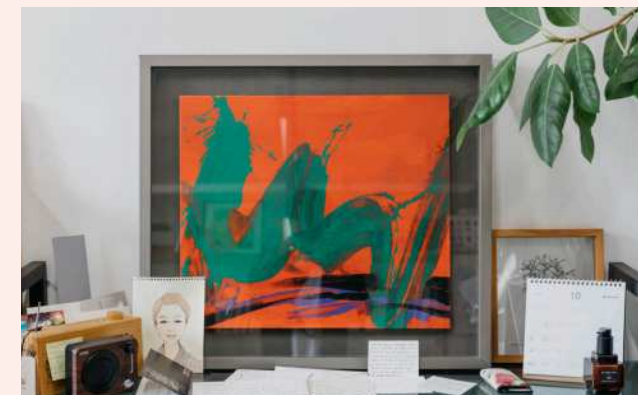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 상캠프에 입주한 입주단체, 도민 모두가요. 기후 위기와 재난의 시대에 어떤 실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을 스스로 지켜나갈 것인지를 모두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상캠프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상도 있어요. 배달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가 상캠프 이곳저곳에 넘쳐납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배달 음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현상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곳이 무료로 개방되는 곳인 만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사랑하는 공간이니 내 것처럼 아끼는 마음을 가졌으면 해요.

**상캠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도민들에게 더 사랑받기 위한 본부장님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 또한 상상캠퍼스의 스태프입니다. 사실 상캠프를 찾는 많은 도민은 MZ 세대부터 50대, 6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런 만큼 세대에 따라 다가가는 방식도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하고 소통하는 자세이겠지요.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고 소개하고 나누는 일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하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고요. 재단의 MZ 세대들은 아주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50대의 한 스태프로써 ‘신중년 세대’ ‘실버 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통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힘을 보태고, 세대 간 연결을 통해 이곳이 다양성이 넘치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스태프로써 팀원들을 조용히 돕고, 좋은 예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경청하고요. 다양한 예술 경험은 일에 반드시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얼마나 많은 예술 경험을 하느냐가 일의 자세와 방향, 그리고 콘텐츠 개발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상상캠퍼스는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함께 ‘미래의 캠퍼스’를 만들어 나가요. 감사합니다!





# 상캠퍼지 추천 코스

아이와 함께 도심 속 숲에서의  
바캉스, 숲캉스를 즐기고 싶다면?

## 숲캉스 코스

생활1980 (포토존·책놀이터·카페·손살이공방) ⇨ 사색의 동산 or 바닥분수(하절기)  
TIP! 축제 날짜에 맞춰 오시면 공연과 플리마켓도 만나볼 수 있어요!

📍 생활1980



📍 책놀이터

아이와 함께 동반한 가족이라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책놀이터에서, 부모님은 바로 앞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 손살이공방

손살이공방에는 화~일요일 공방을 방문할 수 있는 그루버 공간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재재상점

제로웨이스트샵,  
문화예술·환경 프로그램 진행



이서우드

목공 공예 프로그램 진행



주민센-타

샌드위치와 음료 판매



📍 사색의 동산

생활1980 앞 넓은 잔디밭에서  
숲멍 풀멍 하기 딱!

📍 바닥분수

여름에 놓칠 수 없는 경기상상캠퍼스의 바닥분수! 여벌 옷과 수건을 챙겨 오세요.

※ 하절기 운영/10시~18시(40분 운영, 20분 정지)/월요일 휴무/우천,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중단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 문화예술 코스

e상상캠퍼스 사전 프로그램 예약 ⇨ 문화예술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 **교육1964**  
 생활문화 취미를 갖고 싶다면? **생생1990**  
 메이커스페이스에 관심이 있다면? **상상실험실 or 디자인 스튜디오**

📍 e상상캠퍼스  
 e상상캠퍼스 누리집에서 희망 프로그램 사전 예약하기!

### 프로그램 예약

#### # 교육

- 정규프로그램 : 숲, 생태를 기반으로 진행되는 전 연령 대상 프로그램
- 양손학교 : 양손 가득 배움을 얻고 사회변화프로젝트를 통해 나누는 성인 프로그램
- 생활창작공방 : 커피, 재단, 사진, 드로잉 등 생활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
- 시디즌 학교 : 도민 누구나 디자이너가 될 수 있는 디자인 프로그램

전체보기
문화행사-전시
교육
상상실험실
디자인스튜디오

프로그램 전체보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예약중인 프로그램
전체 프로그램
예약중인 프로그램
종료된 프로그램

[상상실험실][매김] 드로잉 다기 | 원데이 클래스--

행사 2022.12.01 - 2022.12.19  
수강 2022.12.04 - 2022.12.18  
만 13세 이상 및 성인(매상년차: 505차 동반 필수)

[상상실험실] 스트링 아트 제작 체험 | 원데이클래스--

행사 2022.12.01 - 2022.12.19  
수강 2022.12.02 - 2022.12.18  
만 13세 이상 - 성인(매상년차: 505차 동반 필수)

[상상실험실] 장비안전 필수교육 | 유리컵 | 12월

행사 2022.12.01 - 2022.12.19  
수강 2022.12.02 - 2022.12.18  
만 13세 이상 - 성인(매상년차: 505차 동반 필수)



📍 **교육1964**  
 교육1964와 숲속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기!  
**TIP!** 예약을 미리 하지 못했다면, 1층 '모두배움터'에 상시 비치된 재료로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어요!

📍 **생활창작공방 (생생1990 3층)**  
 커피, 드로잉, 사진촬영... 듣기만 해도 즐거운 생활문화를 생생1990 3층 생활창작공방에서 배워요!



📍 **상상실험실 (생생1990 1층)**  
 도자, 유리, 목공, 제작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만의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장비 사용법을 배워볼 수 있어요!



📍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1978 2층)**  
 3D 프린팅, 리소 프린팅, VR 등 디자인과 관련된 프로그램 체험과 장비를 배워볼 수 있어요!



# 문화예술도 가득, 인생샷도 가득한 데이트 코스

## 데이트 코스

디자인1978 (전시장·d라이브러리·아트샵) ⇨ 공작1967(그래피티 포토존) ⇨ 사색의 동산/잔디마당 피크닉

### 📍 디자인1978

전시 관람, 독서, 쇼핑을 한 번에!



📍 '계절별 추천 스팟'을 참고해서 인생샷 잔뜩 찍기!  
'계절별 추천스팟' p128~135참고!

📍 사색의 동산, 잔디마당에서  
피크닉 즐기기!





## 금강산도 식후경, 상캠 맛집 투어

\*운영시간의 경우 가게별로 상이

📍 주민센터(생활1980 1층 손살이공방 4호)  
상캠지기 추천 🍴 리코타치즈 샌드위치, 바질&살라미 샌드위치, 레모네이드



## 먹방 코스

📍 7377버거(청년1981 1층)  
상캠지기 추천 🍴 베이컨치즈버거, 7377 프라이



📍 피스커피(생활1980 1층)  
상캠지기 추천 🍴 홍시 스무디, 빙수(하절기)





## 계절별 추천 스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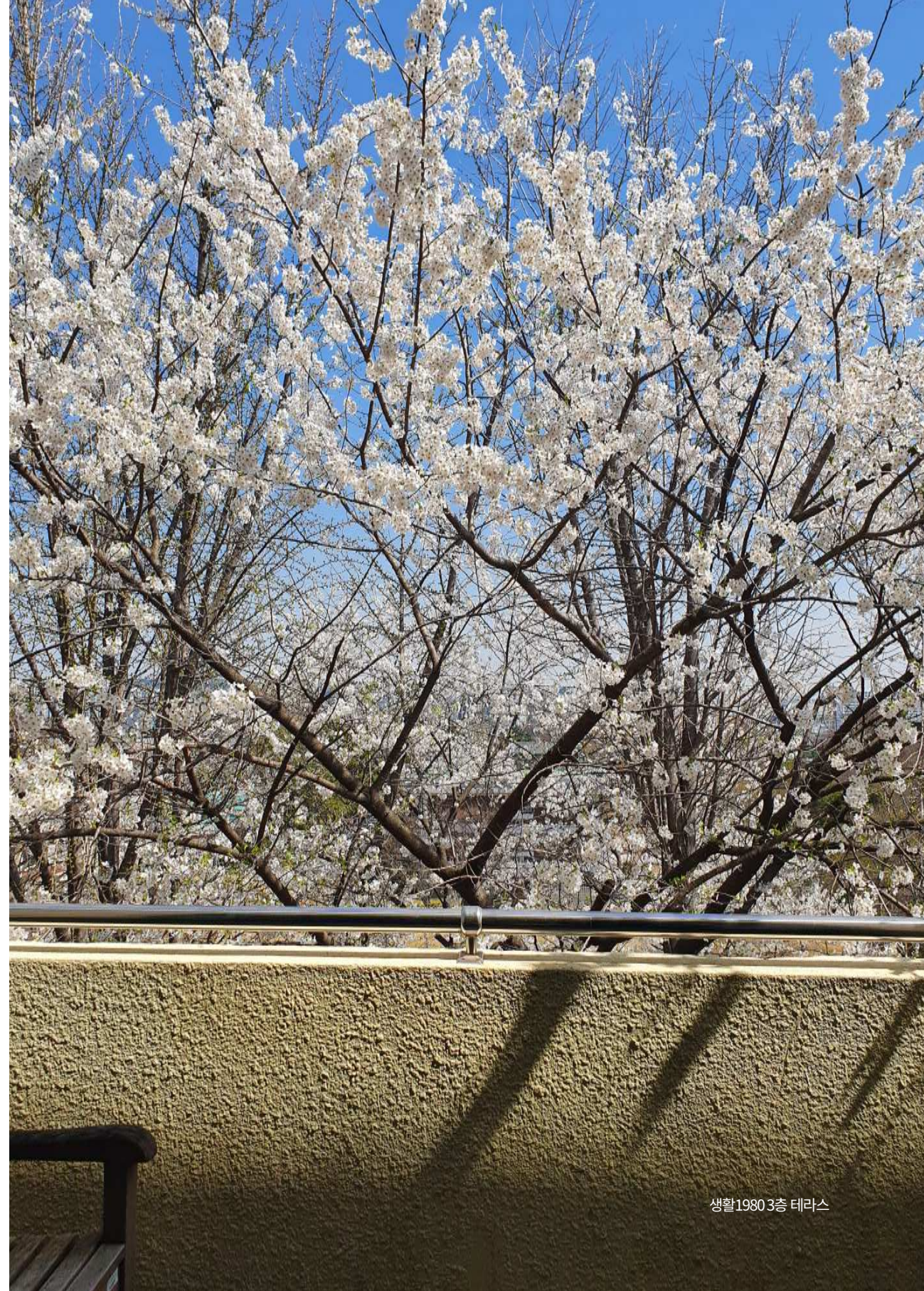
계절별로 꽃구경하러 여기저기 다니고 있다면 모두 주목!  
상캠퍼스가 알려주는 사계절 놓칠 수 없는 상상캠퍼스의 인생 포토존.

봄

여의도 부럽지 않은 벚꽃 샤워



(시계방향으로)  
사색의 동산 목련나무  
공작1967 희망심터 벚꽃  
잔디마당 수양벚꽃





여름

찰칵 찍으면 여기가 바로 상트럴파크



바닥분수



(시계방향으로)  
어울마당, 하늘정원  
사색의 동산  
경기도기숙사 방향 불두화길



가을

감성 가득 가을 인생샷 명소



생활1980 옆 은행나무



(시계방향으로)  
바닥분수 갈대  
치유의 굴뚝과 은행나무  
사색의 동산  
생생1990 앞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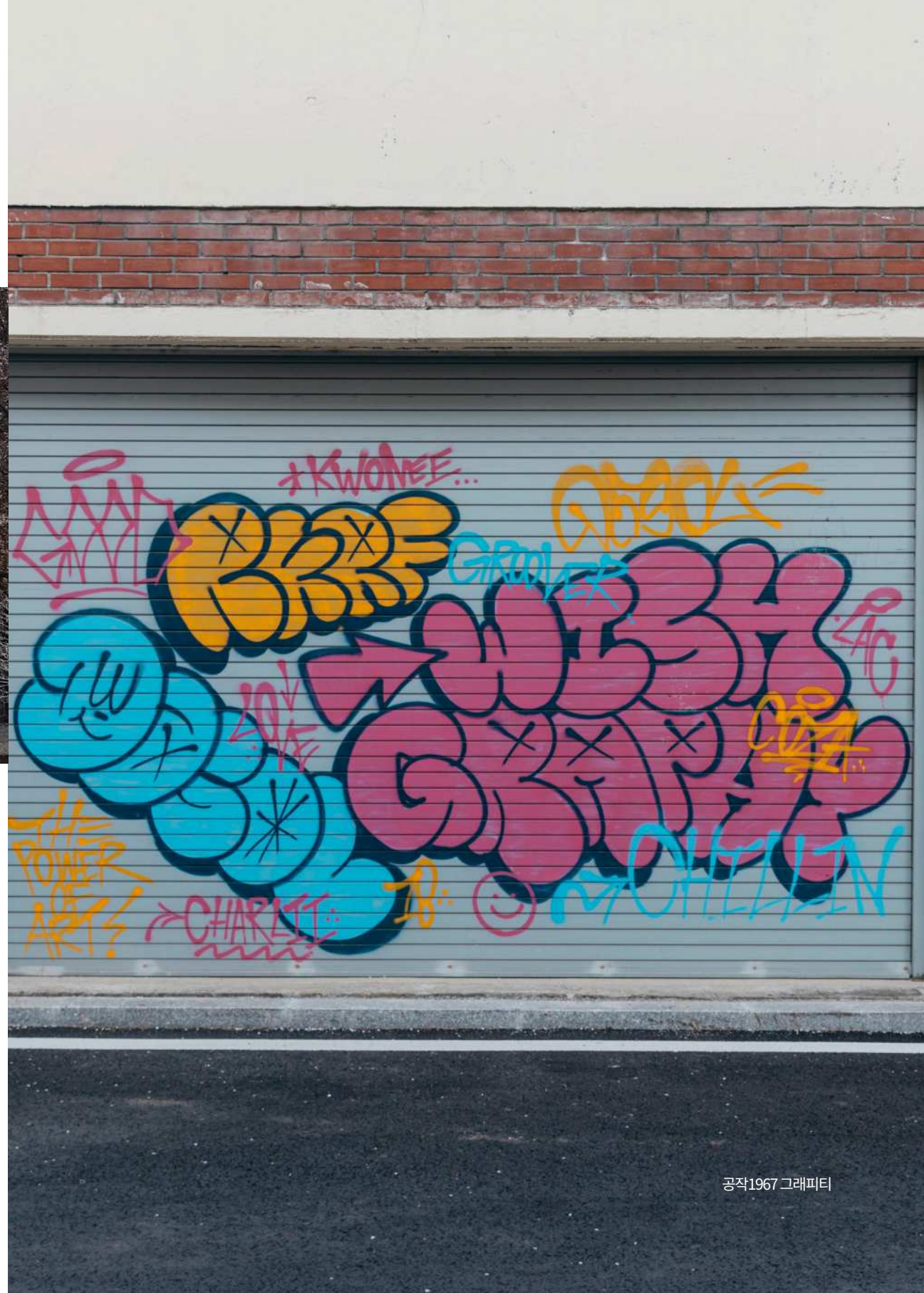


겨울

눈이 내리면 눈사람도 만들고 겨울왕국 만끽하기. 바깥이 춥다면 실내 포토존으로!



사색의 동산  
생활1980 1층 포토존



공작1967 그래피티



# e 상상캠퍼스

알고계셨나요? 알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내 손 안의 상상캠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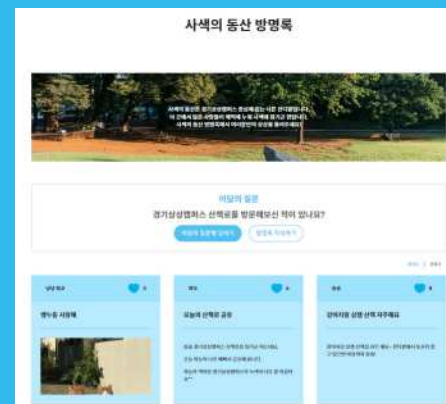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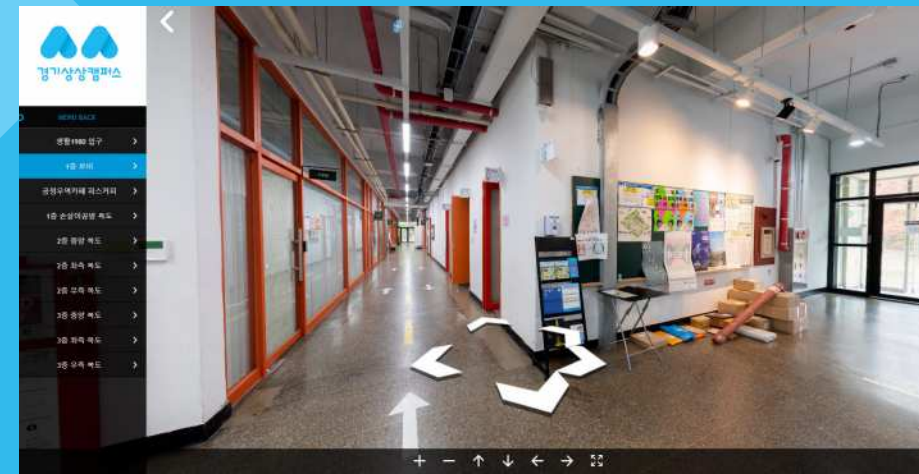


경기상상캠퍼스 미니맵

경기상상캠퍼스 VR

경기상상캠퍼스 학과매칭고사

미니게임 < 상상대로 척척 >



사색의 동산 방명록

프로그램 예약





# 상캠플리

상상캠퍼스의 숲을 걸으며 듣기 좋은 계절별 플레이리스트



- TRACK 01 청량감 뽐뽐! 경기상상캠퍼스 숲 속을 거닐며 듣는 상캠플리 여름편
- TRACK 02 고즈넉한 해질녘~ 경기상상캠퍼스 숲 속을 산책하며 듣는 상캠플리 가을편
- TRACK 03 눈내리는 상캠에서 즐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뽐뽐 상캠플리 겨울편
- TRACK 04 최유리 - 숲 | 숲숲라이브
- TRACK 05 몽돌 - 러닝(Running) | 숲숲라이브

# 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 디자인마그넷 “상상의 순간”

6,000

(뽕누동 / 사색나무 / 상상구름)

경기상상캠퍼스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풍경과 이야기가 담긴 마그넷



## 상상드로잉 무드등 만들기 kit

18,000

도안북을 따라 상상캠퍼스의 곳곳을 그리는 키트. 피크닉에 함께하면 예쁨은 덤!



## 사계를 담아낸 친환경 엽서

1,000

사계의 풍경을 오롯이 담아낸 친환경 엽서



## 잔가지 볼펜 set

8,000

가지치기로 버려지는 나뭇가지를 업사이클링한 볼펜



더 많은 상품 보러가기



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  
10% 할인 쿠폰

· 중복 할인 적용은 불가합니다.  
· 사용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



# 생일 축하해요, 상상캠퍼스

올해 6살을 맞이한 상상캠퍼스!  
상상캠퍼스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도민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세요.



좋아요 20개  
myphotoessay 올해 #생일파티 도 #상상캠퍼스 에서 했음. 사진이 잘 나와서 맘에 들!! ㅋㅋ 상상캠도 6월이 생일인듯!! #상캠6주년이벤트 #상캠생일축하해



좋아요 31개  
simseohee\_ #상캠생일축하해 #상캠6주년이벤트 #경기상상캠퍼스 #수원상상캠퍼스 옛 서울 농대 캠퍼스를 가꾸고 리모델링 하여 사용중인데 경기도 기숙사고 그 앞이 상상캠퍼스! 어 느덧 다양한 문화와 행사의 장소로 자리매김 되었다 🍀



좋아요 7개  
hanjihye91 언제가도 재미있는 #경기상상캠퍼스 물놀이도 재미있고 텐트치고놀기도 재미있고 책도보고 놀기도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아 좋다♡

#상캠6주년이벤트 #상캠생일축하해



좋아요 9개  
kkbosuk81 우연히 알게되어 작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상캠퍼스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추억을 쌓았고 지금도 쌓아가는 중 아이들이 좋아했던 할로윈데이와 엄마의 커피수업 손재주없는 아빠의 손수건 자수 그리고 물레체험 마스크를 벗진 못해도 마음껏 뿤 수 있었던 넓은 잔디가 30분이 걸려도 기분 좋게 갈 수 있었던 이유~~~ 올해도 두근두근♡♡♡

#상상캠퍼스 #상캠6주년이벤트 #상캠생일축하해



좋아요 103개  
sssongs\_ 오빠쉬는날🎵 아침에 하늘보고 급 피크닉🍀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과자먹으며 커피마시며 좋아하는 드라마보며 #여유로움 #힐링🍀🍀 #상캠6주년이벤트 #상캠생일축하해



좋아요 24명  
jangtaesan24님 외 24명이 좋아합니다 cho\_il\_woong .  
#너가웃으면나도웃아🍀 #상캠6주년이벤트#상캠생일축하해 #경기상상캠퍼스#아침없이주는나무🍀  
상캠이 생긴지 6년이 됐다고 한다 우리가족은 3년전에 처음으로 상캠에 왔던것 같다 해가 갈수록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시설도 업그레이드 되는것 같아서 수원시에 감사하고 고맙다 상캠은 우리가족에게 아침없이 주는 나무 같은 곳이다🍀 진심으로 축하해요 6주년 🍀 @sscampus.kr 앞으로도 변함없이 부지런히 방문할 거예요🍀



좋아요 26개  
dreaming\_hahamom #추억소환 #상상캠퍼스6번째생일축하 \_코로나 전에는 아이들과 상캠에 자주 갔었네 \_둘째가 백일이 갓 지났을 무렵부터 \_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때도 \_우리 가족 추억이 가득한 곳 #상상캠퍼스 \_비누방울이랑 공은 필수!! \_ \_ 이번 주말에 또 가보자🍀 #경기상상캠퍼스 #상캠생일축하해 #상캠6주년이벤트 #6주년 기념축하이벤트 #추억의상상캠퍼스



#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

‘모두의 숲’을 지키기 위하여 진행중인 ESG 캠페인 ‘지구와 함께하는 상상’



경기상상캠퍼스는 모두의 휴식공간이자 문화공간입니다.  
풀과 나무, 시설물을 보호해 주세요.

가져오신 쓰레기는 분리수거 해주세요.

**상캠프와 함께하는 ESG 캠페인**

- 일회용품 사용은 지양해주세요!
- 내가 만든 쓰레기는 가져가 주세요!
- 잔디를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 경기상상캠퍼스 내 취사는 불가합니다!
- 흡연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가능합니다!

2~4인용 원터치 텐트만 설치 가능하며, 잔디 보호를 위하여 땅에 박는 모든 설치물(타프, 그늘막, 로프, 펙, 파라솔 등)의 설치가 불가합니다.

상상캠퍼스와 친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는 SNS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 안내

## 오시는 길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지번주소: 서둔동 103-25)  
**주차** 100대 가능  
**전화** 031-296-1980



수원시내버스 88, 720-2 탑승 → '경기도기숙사' 또는 '경기상상캠퍼스' 정류장 하차 → 도보이동 2분  
 수원시내버스 13-1, 13-5, 92 → '서호중학교' 하차 → 도보이동 7분



1호선 수원역 7번 출구 →  
 88, 720-2로 환승 후 '경기도기숙사' 또는 '경기상상캠퍼스' 정류장에서 하차 → 도보이동 2분



경기상상캠퍼스(구 서울대 농생대 후문)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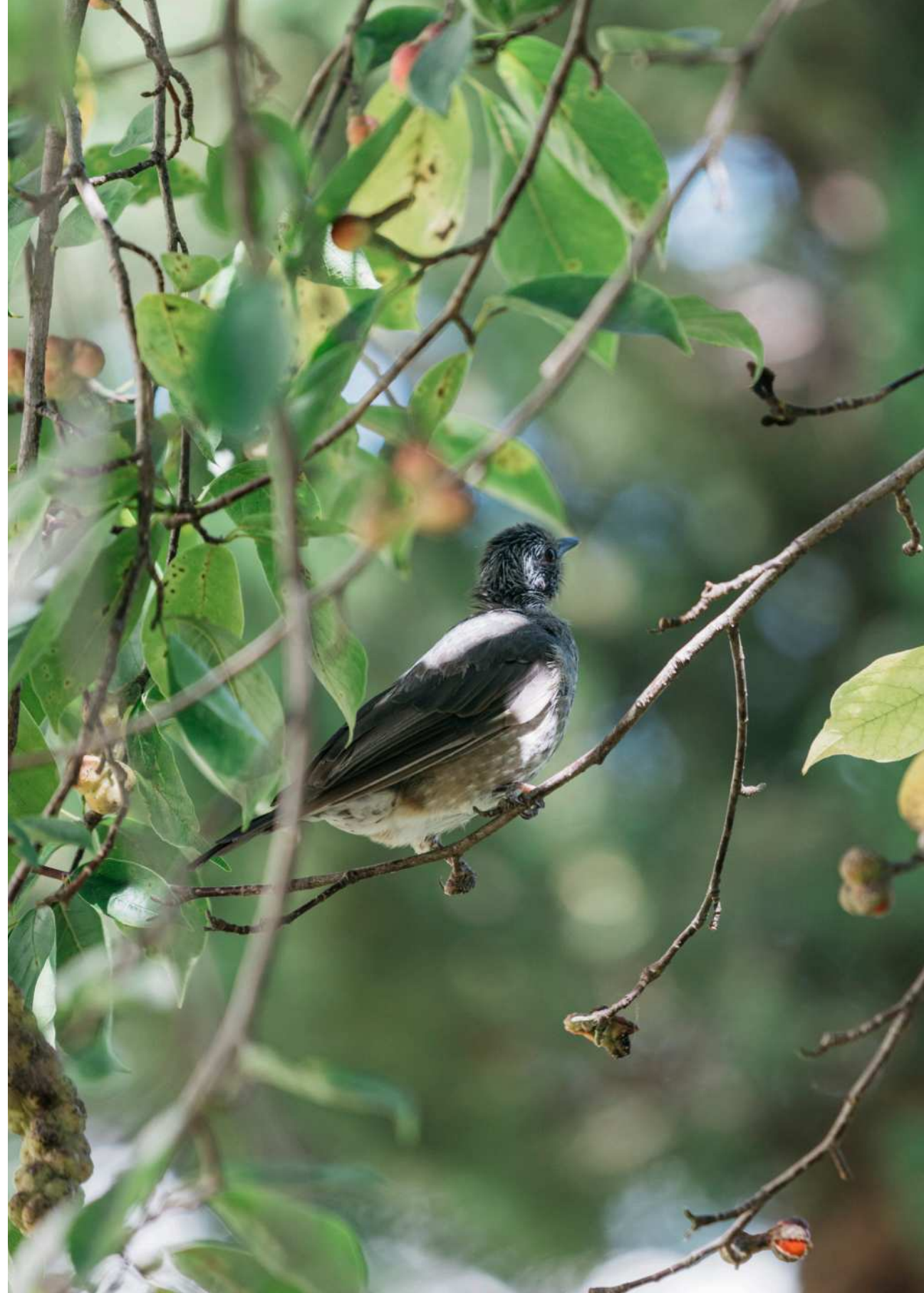
## 운영시간

구분	건물
운영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 ~ 18:00
휴관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당일 휴관

## 편의시설 안내

	<b>경기상상캠퍼스</b> 031-296-1980		<b>대관문의</b> 031-296-1892 지지씨 멤버스 members.ggcf.kr 참조
	<b>수유실</b> 생활1980, 생생1990 1층		<b>어린이 책놀이터</b> 생활1980, 생생1990 1층
	<b>바닥분수</b> 생생1990 앞 / 031-296-1891 화~일 10:00 ~ 17:00 (6월-10월) 우천, 강풍 시 안전을 위해 가동 중단		<b>경기상상캠퍼스 아트샵</b> 디자인1978 1층 / 031-296-1629 화~일 10:00 ~ 17:00
	<b>피스커피</b> 생활1980 1층 / 02-365-7891 월~금 11:00 ~ 18:00 토~일 10:00 ~ 18:00 동절기 운영시간 변동 가능		<b>7377(칠삼칠칠) 버거</b> 청년1981 1층 / 010-7746-3192 화~일 11:00 ~ 20:00 (재료 소진시 조기마감) 인스타그램 @7377suwon
	<b>주민센-타</b> 음료 및 샌드위치 생활1980 1층 / 0507-1330-4569 수~일 11:00 ~ 17:00 인스타그램 @jumince_nter		









발행 경기문화재단

총괄 문화예술본부장 주홍미

운영 생활문화팀장 최진호

진행 박지은, 김가영

도움주신분들 김동준, 김예원, 김소정, 김지연, 김혜지, 박성희, 위유경, 이주현, 전유진  
대나무학교, 더브랜드웍스, 바바야가, 씨드앤그로우  
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엔다스, 집우집주, 트리플레이팅, 피큐알

사진 아트온컴퍼니, 세븐클라우드 프로덕션

편집 책뜰

교정교열 다미안

디자인 책뜰, (주)팀도밍고

인쇄 (주)클로버리, (주)선명씨앤피

주소 경기도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둔로 166 경기상상캠퍼스

전화 031-296-1980



경기상상캠퍼스 SNS



e-상상캠퍼스



본 소개자료집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에 있으며,  
저작권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소개자료집은 친환경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